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5월 7일 (토) 제 158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답게!

#### 5월 15일 성령강림주일...오순절 역사, 교회공동체와 성도의 삶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성령강림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다. 이와 함께 부활일로부터 50일째(승천일로부터 10일째)에 해당되는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령강림주일로 지켜왔다.

성령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여러 언어로 말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이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렇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저 눈물만 흘리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다. 제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한다.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됐다. 이제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버렸다. 이기심과 욕심도 버렸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친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변화시킨 일이다.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을 어떤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생활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가로 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 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즉, 사랑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등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으며, 믿음생활도 할 수 없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성도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이다.

물론 성령께서는 성령강림절 이전이라고 해서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특별한 경우에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예

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성령은 늘 함께 하셨다.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머무셨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 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성령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 모두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3면으로 계속>



###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절은 언제인가?

#### NY타임스, 트럼프지지자, 공화/민주당원 설문결과 상반된 차이 드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뉴욕타임스(NYT) 지지자들에게 언제 미국이 가장 위대했는지 물었다. 답은 제각각이었다. 9.11 이전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시기를 언급한 지지자들도 많았다(When Was America Greatest?).

트럼프의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이 더 강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이 위대했던 때가 1950년대인지 아니면 10년 전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모호함은 그의 지지자들의 응답에도 드러난다. 미국이 위대했던 시기를 고르라고 하자,

나왔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공화당 지지자의 과반이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열성적이었다. 75%가 1960년대 중반이 지금보다 더 나왔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보다 열성적이지 않았다. 48%가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나왔다

#### 공화-레이건 시절, 민주-오바마 꿈아 "50년전 삶이 더 나왔다" 공화 75%, 민주 48%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9.11 발생 직전인 2000년을 골랐다. 하지만 1955, 1960, 1970, 그리고 1985년 역시 인기 있는 응답이었다. 2% 정도가 트럼프가 캠페인을 시작한 2015년을 가장 위대한 해로 뽑았다. NYT는 트럼프 캠페인 본부에 언제 미국이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퓨리서치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에게 현재보다 50년 전의 삶이 더

고 말했고 17%는 별 차이 없다, 그리고 28%는 현재가 더 낫다고 말했다. 정치학 연구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현재에 대해 느끼는 낙관주의는 현재 집권 정당이 어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현재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인/터뷰 박성진 학장

#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

## 포틀랜드성결교회 춘계 부흥성회

### 주제: 일어나라, 함께가자 '마 26:46'

####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21일(토) 새벽 6시, 오후 7시 30분  
22일(주) 오후 12시, 오후 2시 30분

#### 장소

포틀랜드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ortland)  
4729 SW Taylors Ferry Rd, Portland, OR 97219  
전화: 503)244-9191 323)559-9811(C)



강사: 이정근목사 (유니온교회 원로/미성대 명예총장)



담임: 구자민목사

## 포틀랜드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ortland)





# 시론

## 사슴나무골에서(29): 상실 후에 겪는 애통/애도(Grief)의 과정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우리가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뒤집혀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실의 사건은 너무나 뜻밖에 찾아와서,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그 충격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집이나 사업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섬겨온 교회를 쫓겨간 떠나야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 상실이 우리가 예상한 것이든 충격적인 것이든, 상실의 크기가 크던 작던, 그 상실은 우리 마음 안에 큰 구멍을 남기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나 혹은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적인 고독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고독감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과 신음을 알고 듣고 계시신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애통함 혹은 애도함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애통함이란 극심한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사람에 대해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도함은 그 과정만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한 그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애도는 가끔 너무 지나친 것 같을 때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애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시편34:18).

애통하는 시간은 어떤 점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기간입니다. 애통함 속에 있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이 약간 비정상적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애통함에 젖어 있는 두 사람이 반드시 동일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과정들을 체험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상실의 사건이 발생하면 마음의 준비에 관계없이 일단 충격(Shock)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순서는 다르지만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애도의 과정들과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인(Denial): 상실당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당사자는 "아니야 이런 꿈일 꺼야, 그럴 리 없어" 혹은 "사람은 어차피 다 죽잖아, 난 괜찮아" 등 상실과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단계.

2. 보상(Bargaining): 상실의 공백과 고통에서 도피하듯 일시나마 자기 보상을 시도하면서 무의미한 쉬운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단계.

3. 분노(Anger): 자신 혹은 제3자를 탓하며 분노하는 단계로, 신자일 지라도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지속되는 단계.

4. 우울(Depression): 상실이 결코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극도의 슬픔, 공허감과 고독 속으로 빠져 버리는 단계.

5. 수용(Acceptance):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단계로, 모든 현실이 상실 전으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서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는 길을 찾아가는 단계.

때로 애도자는 상실의 충격과 함께 감정의 무급각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위의 모든 감정의 단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단계지만, 애도자가 어느 한 단계에서 지나치게 오래 머물 경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애도자 옆에 위로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tdspark@gmail.com

# “우린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 뉴스위크, ‘네팔 대지진 1주기’ 생존자들 여전히 식수 식량, 위생시설로 고통 보도

네팔 사람들은 지난해 4월 25일 규모 7.8을 기록하며 카트만두 계곡을 뒤흔든 고르카 지진이 토요일 아침에 발생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한다. 그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그날 학교가 아니라 마을에 있었고 주인 거의 모두 밭에서 일하거나 놀고 있었다. 땅이 우르르거리며 요동치자 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 땅에 무릎 꿇고 계곡 건너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혼비백산했다. 흔들림이 그치자 그들은 언덕을 깎아 만든 길을 따라 집으로 달려갔다. 수년에 걸쳐 진흙과 돌로 공들여 지은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네팔 내부부에 따르면 그날 무너진 집이 60만 채가 넘었다(그중 약 30만 채는 부분 파손됐다). 사망자는 약 9000명으로 극심한 건물 피해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아이티의 2010년 지진에선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네팔 사람들은 신의 가호에 감사하며 더 잊고 새로운 삶을

꾸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파손된 도로는 정비됐고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다. 수도 카트만두의 러시아워는 다시 교통지옥으로 변했고 공기는 숨 쉬기 곤란할 정도로 매연이 심하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자리에 철만 내진 건물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집을 잃은 네팔인 가족 대다수는 지금도 골함석과 플라스틱 방수포 등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지은 위태로운 임시 거처에서 지낸다. 뉴스위크는 네팔 현지 보도를 통해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재건이나 구조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보도했다 (ONE YEAR AFTER A DEVASTATING EARTHQUAKE, NEPAL IS STILL IN RUINS).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지진 발생 후 몇 달 동안 건축 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사람들은 방수포 천막 아래 지내면서 식품과 옷 같은 생필품을 확보하기에 바빴다. 대다수는 집만이 아니라 가진 것도 전부 잃었다. 네팔 정부는 신속히 피해를 파악하고 집을 잃은 가구에 우선 1만5000루피(네팔 루피, 약150달러)를 지급했다. 6개월 뒤 지진 생존자들이 여전히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겨울이 닥쳐오자 네팔 정부는 이재민이 담요와 방한복을 구입하도록 가구 당 1만 루피를 추가 지급했다.



낸다. 화물선 컨테이너처럼 단칸 함석집이 맞붙어 있다. 한 집에 최대 6명이 거주한다. 공기 가족의 일부는 함께 지내지만 나머지는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가운데는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 있다. 함석집 하나는 공동 부엌이다. 여러 가족이 서로 도우며 물을 길어오고 헤어친 담요를 킂고 식량을 얻어 온다.

주민에 따르면 리발디 국제 이재민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물과 위생시설 부족이다.

이재민촌 운영위원회의 나라얀 프라사드 카이투 대표는 "첫 3개월 동안은 시정에서 식수를 공급했지만 연료가 떨어지면서 그마

## 이재민 11만7000명 아직도 임시거처 생활...완전 복구에 66억 달러 소요 재해지역 대부분 국제구호 기부금 쏟아져도 감독 배분에 너무 오래 걸려

정부는 주택 재건 보조금으로 20만 루피(약210달러)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바즈라바라히의 임시 거처에 사는 테즈쿠마티 나가르코티(52·여)는 "공무원들이 이곳에 들락거리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없다. 우린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언덕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지진 발생 전 집이 약 120채 있었지만 지금 서 있는 집은 서너 채뿐이다.

나가르코티에 따르면 한동안 동네 사람들은 관청에 자주 찾아가서 재정 보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두 달 전에 그만뒀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언제나 "나중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통역자가 전했다.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도 정부가 새로 제정한 건축 법규에 맞게 집을 지으려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도 50만 루피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보

조금의 2배가 넘는다고. 이 지역의 옛 집들은 대부분 2층짜리 건물로 상당히 안락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임시 거처는 합석 벽으로 여덟엔 불가, 겨울엔 냉장고가 된다. 한 여성은 담요 3장을 두르고 자지만 밤새 추위에 떠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밤을 무서워한다. 나가르코티의 단칸 임시 거처에 사는 프라프티 타망(24·여)은 "밤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섯 살짜리 아들과 자물쇠도 없고 함석으로 지은 집에 산다. "문이 약해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녀는 성폭행이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지진이 나기 전부터 타망의 남편은 카타르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부쳐왔다. 네팔에선 그런 가정이 흔하다. 네팔인 200만 명이 해외에서 일

한다. 나가르코티의 이재민촌 11동에는 12가구가 산다. 그중 6가구의 가장이 수천km 떨어진 타지에서 일한다.

네팔의 다른 지역에선 새로운 동네가 형성됐다. 락스만과 하리야마 공가는 바르타푸르 시의 5층짜리 집에서 아들딸·손주들과 함께 살며 1층에 낸 가게를 운영했다. 지금 그들은 리발디 국제 이재민촌에서 60여 가족과 함께 지

거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식수를 구하려면 그곳을 떠나 인근의 친구나 친척 집의 수도를 사용하거나 15-20분 걸어서 주 1회 1시간씩 식수가 공급되는 공공 수도에 가야 한다. 추정에 따르면 이재민 약 11만7000명이 이런 임시 거처에서 생활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 초청!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및 학위 수여식

### Global Leadership Forum

**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러시아 모스크바 건설그룹 회장  
러시아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역임  
Russia's Christian past, present and future  
주제: 러시아의 기독교, 과거, 현재, 미래

**Dr. Pho Kaung**  
President, University of Yangon  
미얀마 양곤 대학교 총장  
Myanmar's education and future  
주제: 미얀마의 교육과 미래

**Buhm Jung Roe, CEO**  
NY FUND CEO, 뉴욕투자회사 회장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Korea, 뉴욕 명하원에 수석고위 고층빌딩을 건축 및 투자  
For your future/ Invest to America  
주제: 당신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 투자 하라!

**Dr. Dae Y, Shin CEO, DSE**  
DSE 미국 청년유기 '병커 버스터' 개발회사  
미국전략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주제: 최첨단무기와 미국 & 리더십

### Special Programs June 13-18, 2016

- ▶ Global Leadership Forum 리더십 포럼 June 17, Friday 8:30 am-12:00 pm
- ▶ Commencement 학위수여식 June 17, Friday 3:00 pm- 5:00 pm
- ▶ Midwest Concert. 축하 음악회 June 17, Friday 7:00 pm-9:00 pm
- ▶ IEA Ordination 목사안수식 June 18, Saturday 10:00 am-12:00 pm

문의: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답게!

(1면에서 계속)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경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성령의 역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세속화 되기 때문이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건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

개하는 일이 없이 종교적인 체험에만 치우친다면 그냥 종교적인



유히에 멈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 거기서 오는 신

비한 현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참으

수가 있다.

성령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 성령의 전체적인 역사를 모두 경험하고,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체되고, 쇠약해 보이는 한인교회들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또한 예수께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항상 살아계시며 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령강림주일이 돼야 한다!

(편집부)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목회와 설교(하)

겸허히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

목회가 그러하듯 설교도 정도를 벗어나면 안된다. 사람을 생각하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컨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이면 텍스트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누구나 설교를 한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다 설교일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강단의 정비작업이 요청된다. 요즘 TV를 보면 설교대회를 방불케 한다. 내 설교 내 돈 내고 내보내는데 무슨 시비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 스타 설교자들의 설교가 영상매체를 매우고 있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설교에 매료되고 있다. 반면 자기네 교회 목회자 설교와 스타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비교평가 하는 일이 쉬워졌다.

‘누구만 못하다. 누구 설교가 좋다. 왜 우리 목사는 그런 설교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라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뿐인가. 방송료만 내면 누구에게나 설교방송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형평성에 있어선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논리와도, 신학과도, 성경과도 상관없는 그런 설교가 공공인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설교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면 반응과 결과가 부정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설교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심판, 징계, 고난, 책망이 꼬리를 감추고 변명, 축복, 성공, 형통이 춤을 춘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머잖아 허약체질이 되고 만다. 바로 여기에도 균형이 요청된다. 야단을 쳐야 할 때는 야단을 치고 칭찬을 해야 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칭찬만 하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고, 야단만 맞다 보면 기를 꺾지 못하고 주눅이 들게 된다.

필자는 지금도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면 두렵고 떨린다. 특히 35년을 섬긴 충신 강단에 서면 입에 침이 마르고 겁이 난다. 필자는 멋진 설교, 갈채 받는 설교, 칭찬 듣는 설교, 명설교의 꿈을 접은 지 오래다. 대신 최선을 다하는 설교,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싶다. 35년 동안 서툰 설교에 귀를 기울여 준 충신교회 교인들이 고맙다.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대언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대언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겸허하게 정도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음향기기의 경우 앰프 출력이 모자라거나 고장이 났을 때, 마이크나 스피커가 문제가 있을 때, 전선이나 마이크 줄이 노후 되었을 때 소리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라는 전달매체를 통해 선포될 때 전달자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아무리 위대한 설교라도 전달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잠을 나지 않는 설교자, 깨끗한 설교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듣는 이들과 소통하는 설교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iamcspark@hanmail.net

### “우린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2면에서 계속)

네팔 전역에 식수난이 심각하다. 정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수도관 약 5200곳, 화장실 22만 곳이 파손됐다. 일부는 수조에 금이 갔거나 수도관이 파열됐다. 다른 곳에서 지각의 이동으로 지하수와 하천의 수위가 달라져 수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현재 약 114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지 못한다. 또 104만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네팔 전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네팔 국가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복구에 66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도 극심하다. 지난해 4월 지진이 났을 당시 네팔은 임시 헌법으로 통치했다. 지난해 9월 헌법이 최종 발효됐지만 즉시 반발을 샀다. 일부 소수 민족이 헌법에서 소외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 그에 따라 네팔-인도 국경 검문소가 봉쇄되면서 네팔 전역에서 연료가 부족해 물가가 더욱 치솟았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네팔지부장 피파 브래드포드는 “전국적으로 식품 가격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의 시장과 시장 접근은 정상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언덕 마을 바즈라바하리엔 지진이 발생하기 전 500루피였던 쌀 한 자루가 지

금은 1800루피로 크게 올랐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봐도 별로 고무적이지 않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환경리스크센터의 소



에밀리 소장에 따르면 2005년 큰 지진이 났던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경우 복구비가 너무 더러 주민 다수는 희망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아이티에선 2010년 대지진 후 135억 이상의 전례 없는 구조금이 쏟아졌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재건은 아직 시작되지

도 않았다.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지 약 7년이 지난 2012년 7월이 돼야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이재민 임시 거처가 철거됐다.

네팔의 지진 복구 작업은 국가 재건공사(NRA)가 주도한다. 41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 구호자금

다. 마침내 네팔 정부가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집을 잃은 사람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57만 가구에서 약 77만 가구로 경증 뛰었다). NRA는 실사를 하느라 또 시간을 보냈다. 주민들은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방수포보다 좀 더 나은 자재를 구해 임시로 살 집을 지었다. 제대로 된 집을 지을 만큼 돈을 모으려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도진이 돌아온 마을마다 가족들은 합석집을 좀 더 낫게 만드느라 열심이었다. 기초를 다지고 벽을 보강하고 현관 위를 가리고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

프라카시 파라줄리(31)의 가족은 지난해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지은 3층짜리 석조 건물에 살았다. 그는 “거기서 내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집이 무너졌을 때 난 대성통곡했다. 내가 입고 있던 옷만 남았다. 나는 거의 일주일일 울부짖었다. 하지만 텐트 아래서 계속 살 순 없다.” 그래서 그는 진흙으로 토대를 높이고 테라스와 작은 텃밭을 만들고 나무 서까래로 지지되는 지붕을 덮고 멋진 페인트도 칠했다.

그러나 아무리 꾸며도 구조가 허약한 집이라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의 아내 사비타(31)는 “폭풍이 닥칠 때마다 두렵다”고 말했다. 딸 프라프티(10)는 자주 악몽으로 울며 깨어난다. 여진도 400차례 이상 계속됐다. 그들은 임시로 지은 집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너무 무섭다. 지진이 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과 기부금을 감독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NRA는 일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많은 비난을 샀다. 그러나 NRA만 탓할 순 없다.

지난해 말 취임한 수실 그야왈리 NRA 대표는 “이 기구를 만드는 데 6개월 이상 걸렸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했다”고 해명했



# 오이코스 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목회자들이 사역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목회 전 분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오이코스 대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은 잘 짜여진 교과과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을 통해 목회현장과 신학의 학문적 연계를 튼튼히 해 줄 것입니다.



**김 홍 기 박사**  
오이코스대학교 박사원 원장

-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역임
-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역임
- 한국 웨슬리학회 회장역임
- 전 한국 신학대학협의회 부회장
- 한국기독교교육출판대상 수상
- Drew University (Ph. D.)
- Wartburg Theological Seminary (STM)
- 연세대학교 (Th. M)
- 감리교신학대학 (Th. B)

- 원서 접수처: 본교 교무과 / 입학 상담 전화: 510-639-7879
- 주 소: 785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오클랜드 공항 입구)
- 웹 사 이 트: oikosuniversity.org / 이메일: oikosuniversity@yahoo.com

- 수업연한 및 방법: coursework 2년
- 논문 (Dissertation & Project) 1-3년
- 봄, 가을 각 2주간씩 계절학기 진행
- 이수 학점: 교과 과목 수강 (30학점), 학위논문 (6학점)
- 입학자격: M.Div. 소지자로 3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 자
- M.A. 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 자
- 신청 서류: 교회 지도자 추천서 2부, 입학 지원서, 성적증명서
- \*현직 목회자, 선교사 및 사모에게는 장학금 지급

### 오이코스 대학교는

Oikos University achieved its full approval for accreditation by the 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o offer Bachelor, Master and Doctorate degrees. Oikos University is listed in the TRACS directory of member institutions. TRACS is recognized by the USD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ssociation).

오이코스 대학교는 연방정부의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박사, 석사, 학사 학위과정의 학력인증뿐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오이코스대학의 학력인증기관인 TRACS는 연방정부의 교육국과 연방정부의 학력인증 기관인 CHEA로부터 학력인증기관으로 인가 받아 본교에서 취득한 학위와 학점은 공인력을 갖습니다.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진젠돌프

역사는 한 사람의 삶을 다양한 계 조명한다. 유럽목회자 세미나(EMD)를 마치고 진젠돌프의 사역자인 헤른후트(Herrnhut, 주님의 보호)를 방문했다. 책으로만 대했던 그 분의 삶의 편린들을 느낄 수 있기에 몹시 기대가 되었다. 먼저 저들의 묘지를 찾았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모라비안 사람들의 묘지가 기도의 탑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길은 마치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처럼 아름답고 몽환적이었

다. 무덤들은 왼편에는 남자들, 오른편에는 여자들로 구분되었고, 가족 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도의 탑으로 올라가는 길 중앙에 진젠돌프(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1700-1760)의 가족묘가 유일하게 있을 뿐이다. 그것도 제자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들었지 싶다. 그곳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깊은 잠속에서 빠져든 진젠돌프의 석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누구나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다. 고로 탄생과 죽음은 백지의 양면과 같은데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진젠돌프는 개신교적 신앙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망명한 귀족의 후손으로 1700년 5월 26일에 드레스덴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내각의원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4살 때 어머니는 재혼하였다. 고로 진젠돌프는 경건주의 리더였던 스페너의 열렬한 후원자인 할머니의 철저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진젠돌프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의 일기장에는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 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 분뿐이다"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그는 이미 15살 때 작은 기도모임을 만들었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열심 있는 소년들과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어 기독교적 형태를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사약했다.

그는 부모의 요구대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드레스덴의 관리가 되어 앞날이 보

장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그런 중에 듀셀도르프를 방문하여 미술전시회를 관람하던 중 스타인베크이란 화가가 그린 그림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 그림은 바로 고난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림으로, 그림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몸 버려 뒀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는 글이 있었다. 그 그림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전사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움직일 수 없었다. 끊임 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의 불을 타고 내렸다. 이 때가 1719년, 그의 나이 19살 때 일어난 거룩한 사건이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그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만남을 선사하셨다. 즉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난 온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었다. 진젠돌프는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주었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땅을 사서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그곳을 헤른후트라 명했다. 그

의 꿈은 수페나와 프랑케의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인 할레대학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선교본부로 삼으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터전을 종교적 자유를 위해 떠난 모라비안들의 안식처로 삼도록 하였고, 종교적 공동체를 세워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도모했다.

그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공직(드레스덴의 왕실법률고문을 은퇴하고 종교적 지도자로 온전히 헌신하였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라비안들이 그를 중심으로 뭉쳤고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100년 동안이나 지속하였다. 그 결과는 겨우 300여명의 모라비안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다.

이들로 인해 영적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 없이 일어났다. 특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성도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는 헤른후트를 방문하여 진젠돌프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요한 웨슬레가 놀라운 부흥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라비안 단체를 통해 받은 감화 때문이

라고 했다. 그는 만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분입니다." 그의 성 같은 큰 집 입구 양면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 입구 오른쪽에는 고후5:1-2절 말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구절이고, 왼편에는 스가랴9:12, 간하여오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 올 지나라는 구절이다. 그는 천국만을 간절하게 앙망하며 그네 여정을 살았다는 의미이리라. 윌리엄켄케는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이렇게 언급했다. 저들이 세운 중요한 공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들이며 그는 자신의 직업과 삶을 통해 신앙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있다고 했다.

우리의 종착역은 결국 작은 무덤이다. 그 분명한 곳을 향해 가는 데 그곳까지 어떻게 걸어가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개인적 과제다. 검은 이끼로 뒤덮여있는 250년이 지난 그의 석관위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꽃이 묻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나요? 라고.... chiesadroma@daum.net

# 푸 / 른 / 초 / 장

**김종권 목사**  
(에틀렌타찬양교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요14:16, 행2:33, 2:38, 고후5:12, 약1:17).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함은 예수님의 명령이요(요 20:22), 성령을 받아야 환난으로 열룩진 이 세상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환난을 이겨내며 주를 본 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살전 1:6, 요16:33) 행19:2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한결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면 이는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성령 받으면, 삶의 현주소가 바뀝니다(1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비록 밭을 딛고 살고 있지만 머리와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살아가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전 3:11)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영(靈)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사학들은 인간을 '안드로포

구축하는데 물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아니되고(눅12:16-21),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올인(All in)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성령 받으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2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으로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

정한다는 것도 모르는 듯 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바울의 이름을 불쑥불쑥 입에 올리는 것은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만 살아온 바울의 이 땅에서의 영광스런 전도자의 삶(고후11:23-27)을 폄하(貶下)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삶의 가치관을 확실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자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에는 없음(갈6:14)과 그 자신의 약함(고후11:30)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성도에 대한 정의(定義)를 무척 좋아하며, 수시로 그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향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미 이 세상의 나는 죽고 말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껏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됐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原動力)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하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다 얻은 바와 다름없음으로 앞으로 성령 받은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4. 성령 받으면, 삶의 종착역이 보입니다(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영안(靈眼)이 열리면(엡1:18),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즉 삶의 종착역이 보이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보이고 믿어집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나 위해 고생 당한 주 예수 보인다"(찬47:23).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출석은 하는데, 그러저러 적당당당히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하며 살다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히고 살아 끝난다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골 3: 1-4)

스(ανθρωπος, Anthropos) 즉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5-7절에는 세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도 인해 구원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Born again) "위엿 것을 찾으라"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라고 새로운 삶의 현주소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엿 것'이 하늘나라임을 본 서신 1장 5절,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롬3:20에서 "오직 우리의 시인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고 그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벧전 2:11)을 살아가는 우리 천국시민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삶을

아야 하는 삶의 대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하늘나라 즉, 영적인 일에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서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고 강령한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엿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면 나 도를 넘는 애착을 보이거나 자랑을 삼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노정(路程)에서의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후4:7)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자랑, 집안자랑, 자식자랑, 재물자랑, 명예자랑, 학문자랑, 이자랑 저자랑 나열하느라 입안이 마르고, 세상일에 자랑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땅엿 것에 속한 사람임을 인

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富饒)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8-10) 할렐루야! 이러한 삶은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내 세울 수가 없는 자랑스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삶입니다.

3. 성령 받으면, 삶의 원동력이 바뀝니다(3절).

오늘 성경은 3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2:20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5:24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18:1).

4. 성령 받으면, 삶의 종착역이 보입니다(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영안(靈眼)이 열리면(엡1:18),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즉 삶의 종착역이 보이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보이고 믿어집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나 위해 고생 당한 주 예수 보인다"(찬47:23).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출석은 하는데, 그러저러 적당당당히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하며 살다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히고 살아 끝난다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4. 성령 받으면, 삶의 종착역이 보입니다(4절).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삶의 현주소와 가치관과 원동력이 바뀌며, 또 삶의 종착역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좇아 육신의 욕심을 벗고(갈 5:16),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서(갈5:22) 이 땅에서 성화(聖化)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런 의(義)의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kmpastor@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기타지역 교회</b>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은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홍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찬): 오전 7:00 주일 2부예배(찬): 오전 8:15 주일 3부예배(찬):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영): 오후 1:45 티타임: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월-토) 유치.유년.부: 오전 10: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아 해 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장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엘파소연립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킬린노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b>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30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찬 양: 오후 8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해 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의 결정**  
최근 텍사스 달라스 지역신문에 한 가지 소식이 실렸다. 지역에서 큰 규모를 가진 교회 중 하나인 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가 한글교육을 독자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지역한국학교에서 독립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신앙의 전수를 위해...1세대와 2세대가 통역 없이 자유롭게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언어와 문화, 신앙을 통해 하나 되는 작업에 들어가...6개년 계획으로 영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예배로 진행...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영어와 한국어가 병행돼 예배가 진행되며 결국 통역없이 성인예배를 함께...”(Newskorea, Apr. 22)

**엄마들의 사고 전환**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세대가 영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니, 미국에 와서도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을 고집하면서 갓 어린 아이에게도 한글교육의 좋은 기회를 멀리하는 경우를 본다. 무지와 근시안적인 선택임이 분명하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붙잡고 가르쳐야 한다. 당연히 지식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이민왔다 생각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어릴 때 김치를 많이 먹던 어른세대들은,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서도 김치를 찾게 된다. 혹자는 한국사람들의 DNA속에는 고춧가루가 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가능한 열매임을 확신하게 된다.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칼럼니스트인 이성현 씨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에서, 말에는 말씨와 말투가 있음을 언급한다. “말에도 씨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말에는 파동이 있어 내가 한 말은 제일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으로 주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을 바꾸면 인격이 변한다. 말을 바꾸면 운명도 변한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운전하는 운전대라고 할 수 있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이다.  
말씨에 비해서 말투는 어떤 것인가? 돌을 던지듯이 툭툭 던지는 행

어 게 된다. 언어를 통해, 문화/역사/사회/관습 등을 함께 익혀가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또한 그 민족과 사람에게 허락한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한다. 한글교육은 부모와의 소통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민족 복화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훈련/선교훈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 우리의 2세대들이 부모세대와 그 언어를 가지고서 활발한 소통을 이루게 될 때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장래 민족공동체의 융성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될 줄로 믿는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선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글교육은 부모세대가 노래하던 통일한국을 향한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도 가끔 미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한국의 좌파사상을 비판하십니다. 설교 시에도 자주 하시지는 않지만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정치 문제를 예로 들어 언급하시는데 신성한 강단에서 성경적 복음만 가르치지 이런 정치적인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LA에서 변 집사

**A:** 목사의 직무는 학사 에스라처럼 성경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속에 적용하도록 설교하여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이지 정치가는 아니기에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현실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세세하게 평론하여 강단에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이지, 전문적인 정치평론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보는 관점(Perspective)에 따라 결론과 비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에 잘못하면 객관성이 없이 우쳐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현실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폴 러신학교의 신약신학교수인 김세훈 박사는 그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설교는 성경을 성도들의 구체적 삶속에 적용하도록 전해야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일간사 제자교회)



## - 한글교육은 신앙유산의 전달과 사명훈련 -

한류에 의한 언어습득의 유해함과 예배가운데 배우는 신앙언어

달라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절실한 배경이 눈에 들어온다. 언어의 전달이 없으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먹어왔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빠속깊이 새기라는 말이 있듯이, 한글교육에 몰입해야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얼굴은 한국사람인데 국적불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스스로도 정체성의 방향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변화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변화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함으로 마침내 열매를 보기 때문이다.

태이다. 즉, 말씨가 훈련된 인격의 산물이라면, 말투는 기본적인 자연적인 생존의 언어인 셈이다. 말씨가 그 사람의 인격의 연습과 훈련이 담긴 정성된 언어라면, 말투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단순한 도구적 언어,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단어의 조합일 따름이다.

언어의 전수가 없으면 유산도 없으며 자녀들에게 언어를 전수하지 않으면, 삶의 좋은 유산을 전달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가 결정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에서 2세대들이 정체성을 배워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에서 한국어로 예배드림에 대해 간절함이 있는지? 2세대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괜찮은지? 꼭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언어의 단절과 신앙의 정체성 위기

오래 전 한국을 떠나 유학길에 시카고에 처음 도착해서 이민교회를 가게 되었다. 주일 오전예배로 한번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모와 함께 중고등학생 조카들은 영어권 예배로, 부모는 한국어 예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들이 편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날에, 온 가족이 한 설교자를 통해 증거되는 동일한 말씀을 가정과 자녀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텐데...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전무한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양육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등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본인의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해 예절이나 언어 소통의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에 미국에 정착하면서 보게 된 이민 가정 안에서는 그러한 언어로 인한 예배의 분리가 심각한 신앙적인 분리로 드러남을 발견하게 되었다.

### 한글교육은 전인교육의 기초

언어의 전수는 부모세대의 유익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최상의 통로가 된다. 본 교회에서 한글 신앙교육을 통해 얻은 작은 경험들이 작은 도움이 될까하여 나누기 원한다. 교회와 설립되던 13년 전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는 한국어 예배, 한국어 설교를 들도록 했다. 주일학교는 한국어 전용으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해 왔다. EM예배가 있지만, 그곳은 성인영어권으로 제한적으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M이 어느 때는 멕시코, 중국, 일본, 과테말라, 미국, 한국까지 6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다.

### 한류문화와 언어습득의 유해함

한류문화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노래들이 급속히 확산되어 미국이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곳 작은 중소도시의 미국인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들어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2세대들이 한국의 다양한 종편방송들까지 가세하여 쏟아내는 예능 콘텐츠들에 대해 저들의 말투와 태도를 볼 때 아주 많은 부분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본다.

물론, 이러한 한류문화가 2세대들의 언어습득효과를 높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2세대들이 주로 대하게 되는 한류 예능 콘텐츠가 말씨의 훈련되고 정제된 언어의 사용이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의 정제되지 못한 비속한 말투와 드라마 내용의 세속적인 흐름들이 북돋워줄 뿐 아니라, 한류를 통해 말의 관심과 배움은 좋은데, 결국 문화의 이면에 감추어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좇아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핸드폰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아무런 걸림 없는 문화의 노출로 인해, 2세대들의 옷차림, 화장, 말투 등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자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라스 지역의 대형교회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한인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지역특성상, 한류문화의 더욱 급속한 전개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들어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위해, 교회 안에서 말씀가운데 예배가운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언어교육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성경에는 생명의 시(詩)와 음악과 역사와 대하드라마와 같은 생명의 작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2세대들이 어디서 자신의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 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말투 투성이의 저급한 한류 말장난의 것로부터, 생명을 놓고 생명을 회복하는 성경에서 예배중의 말씀에서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교육 안에서 언어를 배우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

언어교육은 사명훈련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 물론, 아이들은 편한 언어를 원하고 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교회 교육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지나왔다. 아이들이 부모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으로 대우받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친다. 더불어 설교문을 요약하도록 하고 시상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언어로서의 한국어 말 단어자체가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민교회의 특성상 어렵다고 하지만 본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하듯 오후예배를 통해 극복하게 되었다. 장년층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영어로 자치예배를 드리면서 EM목사님으로부터 성경언어의 감각을 유지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녀교육의 부분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인사태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게 자란 미국 2세대와 다른 점을 발견한다. 마이클 중에는 이곳에서 태어났음에도 중고등학교 때 필자의 경상도 사투리 설교까지도 한글로 동시통역을 하였는데, 아이비리그의 좋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그 아이는 매우 주일아침이면, 한주도 빠짐없이 나에게 아침인사를 문자로 보내온다. 가정교육의 탓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부모가 시키고 가르쳐도 마이웨이를 외치는 것이 오늘날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를 통해 부모세대의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전인교육의 복된 기초가 아

### 유산(遺産)과 유업(遺業)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은 유산(遺産)과 유업(遺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유산은 재산과 물질을 전수하는 것인데 반해, 유업은 자녀가 평생 할 수 있는 업(業)을 가지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남기는 유업에는 부모의 삶의 지혜와 전통이 함께 전달된다. 그런데 유업은 언어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가난한 집안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순가락 들기를 기다리는 집안을 보면 가난하지만 빠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증거로 혼자가 오간다는 말이 있다. 인사성 하나만 봐도, 어른 앞에서 옷매무새 한가지 만 바르게 하여도, 사람의 됬됨이의 자세가 달라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중시한 어른들의 아름답고 놀라운 지혜이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것을 언어가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모 세대의 이 아름다운 지혜를 전달할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베트남의 쑤-라오(Tsun-Lao)



쑤-라오족은 베트남의 북부 산악지역에 거주하며, 이 북부 산악지역은 1900년대까지는 베트남인들의 영향이 매우 적은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쑤-라오 사람들이 베트남 문화에 동화됐다. 쑤-라오족은 크게 산족, 라오족 등을 포괄하는 큰 문화언어 집단인 타이족에 속한다. 쑤-라오족과 라오족이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세기 전 라오인들은 중국에 살았으나, 중국인들의 병축한 압력으로 점차 남서쪽으로 이동하며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됐다. 1954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북부 베트남에서 공산혁명 일으키고 공권력이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일어났고, 1975년에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공화국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게 됐고, 공산주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 전쟁 후 북부 베트남은 집중적인 산업의 재구조화 기간을 가졌으나, 국가 산업의 질은 계속 악화됐다.

#### 삶의 모습

쑤-라오 사람들은 숲의 산출물을 채집하고,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수공업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작은 시내를 따라 물을 대어서 계단식 논에 쌀(wet rice) 농사를 짓는다. 경작을 위해 초목을 태워 만든 작은 땅에 다른 종류의 쌀(dry rice) 농사를 짓기도 하며, 회전 경작 방법을 이용해 땅을 정리하기도 한다. 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계곡, 나무 등도 채집한다. 쑤-라오족의 마을은 강이나 중국 상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도로를 따라 위치한다. 가족은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위에 높게 지어진다. 가금(집짐승), 돼지,

염소 등이 가족 밑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마을의 중심에 불교 "불상"이나 절이 있다. 과거에 쑤-라오족 사회조직은 귀족중심정치의 형태로,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수장이 각 마을을 이끌어 왔었다. 1945년, 이 수장의 권위는 폐지됐고, 그 이후로 각 지역사회는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회가 이끌어 간다. 더 이상 분명한 사회계층 체제나 세습적 엘리트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쑤-라오족의 현대 사회조직은 혈통이나 씨족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에 기초하고 있다. 베트남이 봉건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쑤-라오족 문화는 극적으로 변화돼왔다. 농부들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있으며 생산물을 균일하게 나눈다. 그 외에 작은 규모의 산업화로 인해 영세농민들이 베트남 노

동계급이 되기도 했다. 사회주의는 또한 교육과 보건 환경에 개선을 가져와 의과대학과 병원들이 쑤-라오족 지역에 세워졌으며 천연두, 콜레라,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통제에 도움을 주게 됐다. 신앙 쑤-라오족의 절반 정도가 독실한 테라바다(Theravada) 불교신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로운 사고, 제사 의식, 자기-부인을 통해 죽은 후에 영혼이 "열반"(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제식 찬송과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들을 달래려고 지속적으로 힘쓴다. 나머지 쑤-라오족은 토속적 애니미즘(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불교가 혼합된 전통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와 물체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존재에 속하는 하나는 "토지의 신"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쑤-라오족은 많은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는 지역은 해마다 문순시기(우기)가 되면 학교, 병원, 다리 등이 피해를 입으며, 수백 가구가 위협받기도 한다. 1996년 8월에는 폭풍, 산사태, 갑작스런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집을 잃었다.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 시설, 의료진 등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 쑤-라오족의 영적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과거 전쟁과 유혈에 상처받은 이 사람들은 내적치유와 참된 영적 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탈북민 도와는 중국 장백교회 한총렬 목사 피살

이탈북민을 도와온 중국 지린성 장백교회 한총렬(49) 목사가 살해당했다고 북한선교 관계자들이 30일 국민일보에 제보했다.



북수의 북한선교 관계자는 "20년간 북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벌여온 중국 지린성 백산시 장바이현 장백교회 한총렬 목사가 4월 30일 오후 2시쯤 18도구 사형장 근처에서 북한 측에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P선교사는 이날 오후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목사의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다"며 "칼로 목을 베 죽였다. 충격적이다. 숨진 한 목사는 경동백 과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P선교사는 "중국을 오가는 북한 보위부원들이 평소 한 목사를 비롯해 탈북민을 돕는 사역자들을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했다"며 "휴대전화를 포함해 한 목사의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한 목사의 시신은 장바이현 변두리 야산에서 승용차와 함께 이날 오후 8시 발견됐다. 한 목사는 이날 지린성의 전화를 받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현재 한 목사의 사인을 수사 중이다.

중국 조선족인 한 목사는 1993년 북·중 국경지역인 장바이현에 교회를 설립해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을 도우면서 북한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한 목사는 지린성 종교국 위원과 장바이현 공산당 종교 관련 임원도 맡고 있다.

장백교회에 위치한 장바이현은 북한 해산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국경도시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이나 무역 등을 하기 위해 오가는 길목이다. 장백교회 관계자는 "600여명 성도들이 어제 저녁부터 모여 한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며 "몇몇 성도는 중국 공안의 수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매일 말일이 되면 누군가 어김없이 장백교회 헌금함에 10여개의 봉투를 놓고 가는데 그 안에 북한 돈이 들어 있었다"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P선교사는 "한 목사의 가족과 장백교회,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중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조선족, 소수민족이라 차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중 접경지역 북수의 선교사들은 북한 보위부가 피살된 한 목사를 도와온 지린성 장바이현 장백교회 조선족 동포 장문석(50) 집사를 2014년 11월 1일 납치했다고 이날 전화를 통해 밝혔다. 장 집사를 기다리던 90세 노모는 지난 2월 사망했고, 딸과 부인은 무사교환을 애가 기다리고 있다.

현지 선교사들 전언에 따르면 장 집사는 한 목사와 협력해 탈북자들에게 식량과 약품 등을 전달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매수된 북한주민 K모(24)씨의 전화를 받고 압류강변에 나갔다가 보위부원들에게 납치됐다고 한다. 이에 장 집사의 가족과 장백교회는 중국공안에 신고했고,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장 집사는 현재 북한 량강도 해산 보위부에 구금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는 "처음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납치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장 집사의 납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뒤늦게 시인했다고 또다른 선교사가 전했다.

####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 않으면 징역 벌금형"

'화장실 전쟁'이 한창인 미국에서 한 소도시가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에 미국 앨라배마 주 옥스퍼드 시 의회가 출생성명서상의 성별을 따르지 않고 현

재 성(性) 정체성에 따라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역·벌금 처벌토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주민은 최대 징역 6월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달러를 내야 한다. 옥스퍼드 시엔 2만1천 명이 산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인권 캠페인'은 현재 성 정체성과 출생 때 성의 구별을 둘러싸고 화장실 이용 전쟁이 치열하게 격돌한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범죄로 단죄한 곳은 옥스퍼드 시가 처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옥스퍼드 시의 조례안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안고 있고, 어떻게 위반자를 검거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빌 파트리지 옥스퍼드 경찰서장은 화장실 조례 위반자에게 소음유발 죄, 외설죄와 같은 일반 경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생물학적인 성 구별에 맞지 않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경찰관 도착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웨이즈 옥스퍼드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성전환 직원과 고객들에게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토록 한 대형 유통체인 '타깃'의 새 정책에 맞붙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깃은 지난 19일 성 소수자인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를 포용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성전환자 직원과 고객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매장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타깃은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협회의'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성 소수자의 화장실 선택권에서 불거진 미국의 '화장실 전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자의 공공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태어난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 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래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 터키, 세속국가에서 종교국가로 선회하나

무슬림 다수국이면 세속주의를 표방해 이슬람교와 서방과의 가교 역할을 해온 터키가 최근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신 조짐을 보이면서 서방측이 주목하고 있다.



터키는 오스만 제국 몰락과 함께 무스타파 아타투르크가 근대 터키의 건국이념으로 세속주의를 표방, 서방 스타일의 의상과 함께 아랍 문자 대신 라틴 알파벳을 채택하고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등 서방에 접근해왔다. 이 때문에 터키는 미국의 핵심 중동 우방이 돼왔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내 유일한 무슬림 다수국으로서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실한 수니파 무슬림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AKP)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국 이래 유지돼온 세속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미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대외적으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 중이며 개헌을 통해 세속주의를 포기할 의향을 비치고 있다. 이들이 추진 중인 개헌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AKP 간부들은 세속주의 포기 의사를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일각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AKP의 실력자인 이스마일 카흐라만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터키는 세속적인 헌법을 포기하고 이슬람 정체성을 반영하는 헌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 헌법의 세속적 성격을 삭제하려는 터키 고위 공직자의 공개 발언은 카흐라만 의장이 처음으로 터키 내에 일고 있는 깊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에르도안의 집권 기간 터키 공적 사회 전반에 종교적 요소가 깊숙이 침투해왔다.

에르도안은 1990년대 이스탄불 시장과 총리, 그리고 대통령에 오르면서 공직자의 이슬람 스카프 착용을 허용하고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며 남녀공학에 반대하는 등의 종교적 제한을 부활시켜 종교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 시절만 세속적인 이슬람 시(詩)를 공공장소에서 낭독했다. 체포됨으로써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2006년 에르도안의 최측근인 알리 바바칸은 EU 가입 제안서에서 세속주의 유지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에르도안은 지난 2014년 자신의 목표는 종교적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로서는 에르도안의 개헌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AKP의 국회 의석이 개헌에 충분치 않은 데다 야당은 세속주의를 고수하면서 정교일치 방침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터키의 이 같은 변화를 예상치 못했던 미국 등 서방측은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미정부 관계자들은 당시만 해도 터키가 독일의 기민당처럼 명칭만 종교적일 뿐 전통적 세속주의와 진보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터키의 지향점이 이슬람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종교국으로의 회귀 전망이 현실화하면서 불안감을 키치고 있다.

미 기업연구소(AED)는 터키가 이슬람 공화국이 될 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미 5개주 경선 대승 힐러리...트럼프는 '싹싹이'

미국 대선 경선 민주당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레이스의 종반부호 향하는 길목인 26일 동북부 경선 5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8년 전 첫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이날 큰 승리로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대권 재수' 끝에 본선행 티켓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50분 현재 총 462명의 대의원이 걸린 5개 주 경선 승부에서 대의원이 210명으로 가장 많은 '대형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압승한 것을 비롯해 메릴랜드(118명)와 코네티컷(70명), 델라웨어(31명) 등 4개 주의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로드아일랜드(33명) 1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며 이날 경선 전에서 참패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은 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2천383명)의 9부 능선에 도달하는 2천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샌더스 의원의 추격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공식으로 오는 6월 14일까지 이어지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7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무난히 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것이 확실 시된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완승의 여세를 몰아 사실상 대선 본선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승리 후 연설에서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든지, 나를 지지하든지 우리는 분열하기보다는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경우, 역시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 172명의 대의원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등 5개 주에서 모두 큰 승리를 거두며 자력으로 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길에 성큼 다가갔다. 누적 대의원도 기존 845명에서 최소 920명 안팎으로 크게 늘리며 '매직넘버'인 1천237명의 8부 능선을 바라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결선투표 성격의)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가능성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 후 연설에서 "오늘은 나에게 가장 거대한 밤"이라며 "내 스스로를 사실상 확실한 대선후보라고 생각한다. 크루즈와 케이식은 레이스를 포기하라. 그들에게는 길이 없다. 우리는 공화당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매직넘버'인 대의원 과반(1천237명)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

해 경선 레이스는 오는 6월 7일까지 마지막 경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 '뉴욕 랜드마크' 161년 된 대성당에 불...사라질 위기'

미국 뉴욕의 161년 된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해 뉴욕의 랜드마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뉴욕 소방국(FDNY)에 따르면 맨해튼 첼시 지구 인근의 세르비아정교회 대성당(Serbian Orthodox Cathedral)에 1일 오후 7시경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1시간여만인 오후 8시경 대부분의 불이 꺼졌지만, 건물에 불과한 위험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화기를 찾으러 불타는 건물 안에 들어갔던 대성당 관리인이 소방관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니얼 나이그로 뉴욕 소방국장은 "좋은 소식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실종자도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쁜 소식은 이 교회가 화재로 파괴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이 난 세르비아 정교회 대성당은 5년간의 공사를 거쳐 1855년에 완공된 역사적인 건물이다. 애초 트리니티교회 교구가 지어지다가 1942년에 세르비아인 이슬람교도 교구에 매각했으며 이후 뉴욕 세르비아계의 종교 활동 장소로 이용됐다. 1968년에는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됐으며, 1982년에는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정해졌다.

#### 현실불만 미 밀레니얼세대 51%, 자본주의 지지 안해

미국 젊은이들의 절반이 미국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젊은이들의 폭발적 지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최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버드대 정치연구소(IOP)가 18-29세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2%였고,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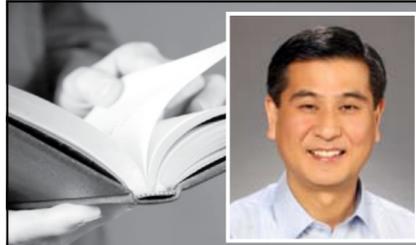
다만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어렵다고 IOP는 선을 그었다. 개인마다 자본주의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으며, 더 넓은 의미에서 젊은 세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80년대 후반-2000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오늘날 가장 젊은 유권자인 이들이 자유 시장 체제의 결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사를 수행한 하버드대 4학년 잭 러스트베이터(22)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예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냉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소비에트연방이나 다른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세계 금융 위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실제 어떤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이들은 상충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를 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7%였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0%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건강 보험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48%.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였다. 이는 지난해 각각 45%, 43%에서 증가한 것이다.



#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10) -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b)

지난 호 요약: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a)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개최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 이후의 후속 모임이었으며,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니케아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나, 자주 사용되는 신학 용어이다.

### ■ 신앙의 대상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의 출발과 함께 신앙의 규범의 위치에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세례를 받을 자들을 교육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가르쳤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송영'을 부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삼위일체 교리는 정리하였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교리사의 첫 번째 논쟁거리인 삼위일체 교리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기본 교리들의 기초가 되었다.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분명한 진리를 요약하고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니는 것은 하

이뤄지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다. 즉, 성부가 자신과 동일한 성자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본질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본질은 '상이'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 성령의 동일본질

성령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가 지녔던 것과 동일하다.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한 분의 하나님'은 정통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다. 신적 본질은 결단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본질이 세 위격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에

##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의 구분 있지만, 영원히 동일한 본질 공유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전체에서 삼위일체 증거 볼 수 있어

나님 중심의 신학 체계와 신앙의 출발점이다.

### 동일본질

'니케아 신조'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동일본질'을 결론지었다. 성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다.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성부 안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성부와 동일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이 성자 안에 있다.

성자가 성부의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영원한 '발생(generation)'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생'이란, 성부와 성자의 본질 사이에 이뤄지는 내적 과정으로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낱음을 입은 것을 가리킨다. 물론 이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도 지속되었다. 아폴리나리우스(Apolinarius)의 삼분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몸, 혼, 그리고 영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고대 철학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인성 이해에 적용하였다.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인간이었지만, 그의 영은 신적인 로고스로 대치되어 채워졌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그의 단일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카바도가 교부들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야 했다는 정통 교리를 재확인 한 것이다.

비하여 성령에 대한 교리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니케아 신조'는 성령에 대해 매우 간단히 언급하였다. "또한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한 문장에 불과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성령에 대한 교리가 많이 보완되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옵나,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애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본질이 성부 또는 성자와 '동일'하다는 구체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성부로부터 '나왔다' 또는 '유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향후 589년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되었다고 결정하였다. 서방교회는 "쌍발 발출

설"을 따랐고 후에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반하여 성령의 동방교회는 "단일 발출설", 즉 오직 성부로부터의 유출을 고집하였다. 이후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열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의 신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미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Arius)는, 성령을 성자의 첫 피조물이라 하였다. 성령이 성자에 종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신성을 부인하려 한 것이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아리우스와 신학 논쟁을 벌이며 니케아 정통 신학을 수호하였다. 그는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신학자로서, 이미 350년대 말에 그가 투무이스의 감독 세라피온(Serapion)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동일본질'이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신조가 성령을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표현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성령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구별하여 존재하지만, 동시에 함께 하나님이 되신 분으로 소개한 것이다. 성령의 위격은 성부와 성자에 비하여 분명히 종속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의 본질은 다른 위격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성령을 포함한 삼위일체를 예배하여야 한다.

### 삼위일체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셨으며,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 모

두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지만, '세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거부한다. '삼신론(Tri-theism)' 즉, 주체성을 가진 세 종류의 신에 대한 언급이란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 위격의 구분은 있지만, 영원히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였기에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삼위 가운데 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머지 두 분도 계시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 분이 하시는 일은 기능적으로 다른 두 분과의 관계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나무의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 세 부분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예로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선명하게 단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좋은 예는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구조는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깊은 지혜를 전적으로 알 수 없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지식이지만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covenantcho@yahoo.com



#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지렁이 같은 야곱? 구더기 같은 인생?

"나는 벌레도 사람이 아니라 사 람의 뱀장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니이다"(시22:6).

여기서 벌레는 톨라(tola)를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인 벌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벌레를 일컫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벌레 중에 톨라라는 벌레가 있다. 이 톨라는 성경에서 진홍색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톨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톨라와 진홍색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톨라라는 벌레를 짓어겨서 진홍색 염료를 얻는다. 이 물질로 물을 들이면 절대 색이 바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진홍색'(톨라)에 비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죄로 물들여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 희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

이 톨라는 나뭇가지 같은 곳에 붙어사는데, 한 번 불온명 평생 거기에 붙어서 산다고 한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벌레가 죽을 때에는 몸에서

진홍색 액체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자기 몸과 새끼 그리고 나무들을 붉게 물들인다고 한다.

(시편 22:6)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뚱이 핏자국으로 물들었으며, 손과 발목에서 그리고 허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주변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톨라가 죽을 때처럼.

요나서에 나오는 벌레가 있다. 박 넝쿨을 갇아먹었던 벌레를 기억할 것이다. 이 벌레가 뜨거운 해를 가려주던 박 넝쿨을 갇아먹자 요나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는가? 우리 성경에는 그 벌레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벌레

의 이름이 바로 톨라였다. 요나서에 나오는 벌레가 박 넝쿨을 갇아 먹었듯이, 톨라도 나무나 풀의 줄기에 서식하며 거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찌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 며"(신28:39). 여기 나오는 벌레도 톨라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사41:14).

여기 나오는 지렁이를 개장판에서는 버러지로, 새번역에서는 지렁이로 번역하였다. 히브리어에는 톨라로 되어 있다. 톨라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일반적인 벌레가 아니라 특정한 벌레의 이름이다. 톨라를 지렁이로 번역했는데, 지렁이와 톨라는 전혀 다른 벌레이다.

야곱을 지렁이로 비유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지렁이와 야곱의 공통점을 찾아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지렁이는 육성을 지닌 인간성을 상징한다. 지렁이는 시궁창이나 땅 속에서 흙을 먹고 살며 하늘을 보거나 햇빛을 받으면 말라 죽는다. 그것은 꿈도 이상도 없다는 것이다.

지렁이는 눈도 코도 없고 손발도 없이 천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무지하고 무력하여 오된 길을 자주 되돌아가고 누가 와서 밟아도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다.

야곱이 젊어서는 휘청거렸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결국 그는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지팡이 같은 곧은 길을 걸었던 것이다.

연체동물이라 스스로 직립하지 못하는 지렁이. 우리는 그 지렁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부패한 육성으로 인해 주님의 도움 없이는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

다. 지렁이는 빠도 가시도 없다. 성도는 그래야 한다. 지렁이는 남을 해칠 능력이 전혀 없다. 성도들도 지렁이처럼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지렁이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다. 우리도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톨라는 지렁이와 전혀 다른 벌레이다. 땅에 기어 다니지 않고 나무에 붙어산다. 때로는 날기도 한다. 연체동물이 아니다. 빠가 있다. 흐물대지 않는다. 패각층 또는 개각층에 속한 벌레이다. 읍기에서도 인생을 벌레에 비유한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욘25:6).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구더기를 벌레(worm)라고 옮겼다. 여기 나오는 구더기도 사실은 톨라이다. 톨라와 구더기는 완전히 다른 벌레이다. 그런데 구더기로 옮겼다.

jinhlee1004@yahoo.com

# 장년부 전임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소속교회입니다

## 청빙 인원: 1분

- 자 격: 1.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 2. 목회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
- 3.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목회의 열정이 있는 분
- 4.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2. 목회의 비전
- 3. 함께 목회하셨던 목회자 2분 이상의 추천서
- 4.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2회분의 CD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

제출서류 마감일: 2016년 6월10일

제출처: 이메일: mrjohnkoh@gmail.com  
우편: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문 의: 고정훈 장로 408-315-2606, 박용갑 장로 408-807-6453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담임목사 : 손 원 배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Tel: 408.263.5100



## 청교도 신앙 ㉓

### 청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안목(중)

2) 우리가 사모할 오류 없는 교과서이다.  
존 코튼(John Cotton)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사람들이 배교품을 가져야 할 것을 말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이 만일 진실로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상충되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만일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원본

어떤 기준도 얻을 수 없다. 단지 성경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모범에 의해서 보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직자들이 입는 성의(聖衣) 문제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결코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영국 국교회가 이 일을 강요했을 때 그들은 그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여 영국 교회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청교도들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용했고, ‘제사 드린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 청교도들은 제네바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영국 교회의 기도서에 나타난 천주교적 전통을 버리려고 했다.

#### 3. 청교도들의 성경관이 끼친 영향

1)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17세기 초기의 청교도들은 영국 전체 국민의 15%에 불과했지만 한 때는 45%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청교도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3) 성경을 매우 사랑하였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가장 권위를 가진 진리이며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유일한 신적인 계시로 받아들였다. 청교도 존 오웬의 말처럼 성경은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며, 신성한 일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의무들을 지시하며, 우리를 유혹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위로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을 진실 되게 사랑했고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위해 전 생애를 희생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 4. 청교도들의 성경교수와 기도

청교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셨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 목사님, 힘내세요!

여성 사역자의 목사안수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흑시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목회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설교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셨는지 수요예배, 어린이들과 부모의 연합예배 설교는 부타받은 적이 있었고 설교라기보다는 강의한다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었다.

그런데 한국에 다니러 갔을 때 작은 시골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 초청을 했다. 나는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목사님은 교수들도 강단에 세운 적이 있다고, 벌써 주보에 광고를 했으니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보고 싶던 설교였는데 막상 할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설교를 앞두고는 언니들하고 여행 중에라도 노트를 들고 다니며 메모하고, 언니들 잠 방해할까봐 새벽에 살짝 일어나서 불도 못 켜 어렴풋한 새벽 빛 밑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기도 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귀한 특권이지만 한편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선 리더를 비판하고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서면 훨씬 잘할 것처럼 생각한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된다면 불평한다. 설교가 지루하다고 한다. 설교 탕은 어찌 보면 설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귀를 한껏 높여 놓은 부정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성도가 줄어도 목사님 탕, 헌금이 줄어도 목사님 탕이다. 물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으로서의 책임은 있었지만 왜 모든 것이 목사님 탓이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봤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는 쓴 옥성호 씨의 말처럼 세상기업 운영 철학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목사님은 목양이 가장 우선이며 인품이 가장 귀한 덕목이어야 하는데 목사님을 기업체 CEO(사장)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블랙커비는 목사에 대한 기대가 CEO 모델로 바뀌면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달라졌으며 교인 수, 헌금 액수, 건물로 목사의 능력이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의 세속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현상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나 헌신, 성도를 향한 사랑보다는 생산해내는 결과에 따라 사역을 평가하고 목회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역을 현대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성공적CEO 모델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아무 교회도 청빙하지 않을 아주 무력한 사역자라는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했으면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났던 말인가? 또 삼년 동안 열심히 했던 제자훈련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기에 핵심제자 열두 명마저도 다 도망가고 말았을까?

리더로서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그 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물론 부활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평가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이다. 그의 나라를 위해 이 땅위에서 목회의 소명을 갖게 하였고, 그의 교회를 위해 늘 애쓰는 자신의 종들이 세상의 성공적 기준에 따라 마구 판단 받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쓰리고 아프실 것 같다.

이미 너무 많은 업무와 책임으로 지쳐있을 우리의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흑시라도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조지 바나의 설문에 의하면 이미 90%의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리더십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lpyun@apu.edu

### 성경을 교회 교과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배 개혁과 갱신위해 노력 철저한 성경중심 가르침과 삶으로 수적 성장 · 성경 가르치기 전에 기도 먼저

의 오류가 아니라 번역 상의 오류임을 강조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기준이 된다.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는 “구약과 신약에는 도덕적 삶의 기준이 담겨져 있다”고 했다. 교회 정치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믿었다. 청교도에게 있어 성경은 교회의 교과서였다.

이 제도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남긴 바른 성경적인 신앙과 경건한 삶은 지금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 3)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제도는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성경관은 당시 로마 천주교의 성경관과 차별을 둔 칼빈(Sola Scriptura)과 그 후의 개혁가들의 정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가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였는가는 그의 언급에 잘 나타나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나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듯이 그들의 성경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며 절대적인 것이었다.  
리처드 시스(Richards Sibbs)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 4) 청교도들은 예배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의 강조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세례식 때 신부가 아기의 머리에 십자가를 긋는 것, 대부 대모를 세워 세례식을 진행하는 것, 산파들이 세례하는 것 등을 비판하면서 개혁하려고 했다.  
주교가 견신제를 하고서야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서 받는 것, 성체에 대해서와 제단에 대해 풀어 절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풀어 절하는 것, 예배당에 십자가를 놓는 것, 예배 때 촛불을 밝히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것들로서 중세의 사제주의에서 나온 미신적인 것들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숙련된 성가대, 벨을 울리는 것, 오르간 연주 등을 예배 중에 금지시켰다. ‘제단’이라는 말을 폐하고 ‘성찬상’이라는 용어를 사

들이 철저한 성경중심의 가르침과 삶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목회의 모범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목양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이며 목회자가 감당할 설교 사역은 어떤 것인가? 바른 예배는 무엇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의 영적인 독립성은 어떤 것인가? 목회의 모범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목회를 가장 올바르게 제시한 목회의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생각이 청교도들의 목회사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청교도들은 목회에서 설교를 가장 고귀한 사역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란 오직 성경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청교도들의 설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계시를 전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실천함으로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비서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 자신의 이해력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분이 홀로 그 말에 지식의 보화들을 숨기셨으며 그 분만이 그 보화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연구실을 열어 하나님의 모든 원고들과 문서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가!”

존 오웬(John Owen)은 더욱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반 원리로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령의 영적인 도우심을 얻기 위한 계속적이며 열렬한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지식을 얻음에 있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 지식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의 정신이 관념들로 빈틈없이 채워졌을 지라도 그는 영적 실패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10:00 Tel: (718) 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GB, 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 9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 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 461-7835, CP, (347) 502-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tech.com</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최초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 502-2571, Fax: (347) 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hurch.org</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 342-9194, Fax: (201) 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영양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에벤에셀선교회</h4> <p>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6:00(화-토)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 571-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p>	<h4>예사랑교회</h4> <p>담임목사: 손한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347) 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p>	<h4>퀸즈안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200 Fax: (718) 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은...</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 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gmail.com</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뱅크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Tel: (804) 584-5780, Fax: (804) 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www.hwaichurch.org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SÃ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로기도회: 아침 7:40 무,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amp;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정관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 21-574-985 E-mail: hanim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www.hwa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847-5252, Fax: (808) 947-5151 www.h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목회서신

지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여승훈 목사

지난 14일과 16일 사이에 Ring of Fire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대만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중남미 등에서 잇달아 강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가능성까지 제기 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지진 공포에 떨었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에서는 41명이 죽고 1,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잠깐 사이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자녀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배우자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자연재해에 대해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깊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기독교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한다.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에 당신들이 믿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이 질문의 의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연재해에 대한 하나님의 관련성은 첫째,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 둘째는 간접적인 허용이 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심판하실 때 나타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홍수사태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재해를 동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식중의 하나로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신다.

나눔에서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자연재해에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간접적 허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잘못된 태도를 짚어보자. 자연재해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일반 자연재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일이다.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감정적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그 자연재해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 자연재해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 자연재해 앞에 본능적으로 우리나라는 감정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진

지함과 지적인 냉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세상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게 지어 놓았던 현대식 건물들이 단 한 번의 지진으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장엄한 자태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이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장엄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행한 공적을 쫓아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 반면에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꺼지고 건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 OC교협 영적각성집회, 강사 원팔연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가 주최한 2016 영적각성대성집회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민승기 회장 사회와 은혜한인교회 찬양팀 찬양인도도 시작된 첫날 집회는 이태종 목사가 기도했으며 은혜한인교회 성가대가 특송했다. 이어 원팔연 목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창12: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원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누



OC영적각성 대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원팔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가 최고의 복을 누리려는가? 하나님이 감동케 하면 기적이 생기고 안될 게 없게 된다"고 말하며, "지금 주어

진 시간들이 인생의 후반전이라 생각하자. 인생의 전반전이 어떻게 되든지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감동케 하리라 다짐하기 바란다. 아브라함은 인생 후반 75세에 부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천국 갈 소망 없이 살기 때문이다. 정말 신앙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예배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했다. 원팔연 목사는 둘째 날 집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딤후2:1-4), 셋째 날 집회는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창39:5-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이사회들이 기념촬영 했다.

학사관리 재정립·이사진 보강 등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이사회 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산하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입 이사 영입 등 이사회를 새롭게 정비했다. 동 신학교는 지난 2, 3년간 학과들의 신병 관계로 다소 혼란을 가져왔던 커리큘럼, 학과별 학점 이수, 전임생 관리 등 학사관리를 재정립키로 했다. 은퇴하는 이사들의 자리를 차질 없이 보강하도록 했다. 은퇴이사는 강기봉 목사(2015년 11월 은퇴), 전덕영 목사(2016년 6월 예정), 이윤길 목사(2016년 10월 예정). 재정비된 이사회는 총 17명으로 다음과 같다. <정리: 유원정 기자>

△목사 이사: 장영춘, 전덕영, 이윤길, 김풍운, 김성국, 손한권, 이성우, 이종일, 허윤준(9인) △장로 이사: 허경화, 홍승룡, 김용생, 이부근, 정길표, 송동률, 장봉석(7인) △집사 이사: 박정복(1인) 이날 이사진들은 분교 교사인 딘 후 2:1-2 말씀을 따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하고, 그들로 또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신학교 되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다짐했다.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2016학년도 졸업일은 6월 13일(월) 저녁 8시에 열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총회 및 세미나 새 회장 박희근 목사, 차재승 교수 "대속론" 강의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대원 동문회가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 총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박희근 목사는 "열심히 잘 섬겨 동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섬기는 교회들이 건 강히 성장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동문회로 발전하길 바란다. 아무쪼록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보루인 총신의 위상을 더 높이고 미주동부에서 동문들이 존경받

는 목회자상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먼저 차재승 교수(뉴브리튼스웨덴 신학교 조직신학)를 강사로 "아직도 대속론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차 교수는 '성경적인 대속'과 '세속적 대속'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성경적인 대속은 '희생과 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선출된 신입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총회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박희근 목사(79회, 뉴욕동원장로교회) △수석부회장: 박성원 목사(뉴욕공성교회) △부회장: 이재철 목사(79회, 필라 밀알산교회) △부회장: 구자범 목사(80회, 뉴욕광명교회) △총무: 변장국 목사(뉴욕해뜨교회) △서기: 이윤석 목사(브루클린제일교회) △회계: 정우성 목사(뉴욕나무교회) △협동

총무: 뉴욕/김요셉 목사(뉴욕예수생명교회), 뉴저지/정광희 목사(뉴저지영광장로교회), 필라/전동진 목사(체리힐장로교회), 보스톤/장의한 목사(뉴햄프셔장로교회). 또 안전처리를 통해 현 사회적 이슈인 동성애 등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울어야 산다' 생방송 TV부흥회 CTS기독교TV 주최, 5월 16-18일

전 세계를 교구로 하는 섬김과 나눔의 방송, 미주CTS기독교TV(대표 김충철)가 생방송 TV부흥회를 개최한다. CTS TV부흥회는 '울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5월 16일(월)부터 18일(수) 오전 9시-오후 4시, 3일에 걸쳐 개최되는데, 첫날인 '16일' 가정, 울어야 산다' △17일 '교회, 울어야 산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8일 '시대,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CTS 미주 본사에서 진행된다. TV부흥회는 디렉TV 채널# 2092를 통해 미 전국에 방영되며, 또한 스마트폰 앱 CTS USA, 인터넷 사이트 www.ctsamerica.tv에서 시청할 수 있고, 생방송이 끝난 오후 4시 이후로는 당일 두 차례 재방송된다. 이번 TV부흥회에는 남가주 뿐 아니라 북가주와 동부 뉴욕, 뉴저지에 이르기까지 60여 개 이상의 한인교회 목회자, 평신도, 찬양사역자들이 참여해 가정, 교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애통하면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 CTS 김충철 대표는 "CTS TV부흥회 '울어야 산다'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늘날 가정과 교회, 이 세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애통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지 경험할 수 있는 참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크리스천 미디어와 교회가 연합하는 영적 TV부흥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TV 부흥회는 디렉TV 채널 2092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방송되며, 케이블은 케이블비전 채널 1156번(뉴저지,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스마트폰 앱 CTSUSA, 인터넷 홈페이지 www.ctsamerica.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교회 홈페이지에서 CTS 시청을 원하는 교회는 CTS로 연락하면 각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4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문의: (562)565-2234 (기사제공: 미주CTS기독교TV)

한미연합회 시민권신청 대행 서비스 재개

한미연합회(KAC 3727 W. 6th Street #305, LA)가 오는 5월부터 시민권 서류 대행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1983년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한미연합회는 2011년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까지 약 20년 간 4만 명의 한인에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서류제출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권 대행 전문 업체가 있지만 시민권 신청비용(680달러)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고가의 수수료까지 지불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미연합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에 대한 한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봉사료만 받으며 시민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KAC은 이 서비스 외에도 유권자

등록 서비스, 대학생 리더십 개발 훈련 등 수 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회복과 교육, 미국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왔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자들은 사전에 꼭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예약: (213)365-5999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김명옥 목사 제35차 정기총회, "신뢰회복" 회기 표어로 내걸어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제35차 정기총회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렘 7:3)라는 주제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에서 열린다. 총회장에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 부총회장 권필립 목사, 총대 강일진 목사 등을 선출했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옥 목사는 "신뢰회복"을 회기의 표어로 내걸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목회자,

목회자와 목회자, 목회자와 사람간의 3가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옥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을 친히 부르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실 때 얼마만큼 신뢰하실까 의문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목회자끼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과한 무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밖의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가 회복 안된 상태에서 무언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날 개회 및 목사 임직식에서는 김남수 목사(증경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 정영호 목사가 안수식을 인도했으며, 이광희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임직식은 6명의 전도사에게 목사안수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재숙(캐척준비), 이영미(순복음시온교회 담임), 이형숙(시카고빌라델비아교회 전도사), 장성애(순복음동부교회 담임), 주희옥(예수사료교회 전도사), 홍길윤(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 전도사).

미주특별연회, 자치연회로 새 출발 KMC, 박효성 초대감독 선출

기독교대한감리회(KMC) 제24회 미주특별연회가 볼티모어 소재 러블리레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우처, 조선선교 133주년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까지'"를 주제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미주특별연회는 그동안 내부 어려움 때문에 한국정부의 관리를 받는 관리감독체제 벗고 자치연회로 새 출발하며 박효성 목사(뉴욕한인

제일교회)를 초대감독으로 선출했다. 전총회 감독회장의 인도아래 진행된 취임식 후 박효성 감독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운데 미주 자치연회 초대 연회 감독이 됐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지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부탁했다.



박효성 감독

# 동부교계 기사판

## east

### 뉴욕교협, 에콰도르 지진피해 구호헌금 모금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가 에콰도르 지진피해 긴급 구호헌금을 모금하며 회원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지난 4월 16일, 에스메랄다스 무이스네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재 집계된 사망자 600여명, 실종 155명, 부상자 8,340명, 이재민 25,376명이다. 계속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긴급구호 헌금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Pay to order: C.K.C,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2791414

### 담임목사 청빙

토론토빌라델비아장로교회(KAPC 교단)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장로교단 인정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상의 35-50세, 한영 이중언어 목회자 가능하며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이력서 및 가족사진, 본인소개서, 목회계획서,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본 동영상, 목사안수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추천서(목회자 1인, 평신도 1인) 등이 필요하다. 원서마감은 7월 15일. 웹사이트 www.kppc.co.kr

▲문의: sdeogo@gmail.com (647)287-5012

### 예장(합동) 해외총회 제 38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 제 38회 정기총회가 5월 23일(월) 오후 4시부터 25일(수) 정오까지 뉴저지 주 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100달러, 부부 동반 150달러.

▲문의: (714)321-4678, (551)655-4224

### 가족 일일 부흥회

뉴저지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러브뉴저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족 일일 부흥회'가 갖는다. 5월 14일(토) 오후 7시 주 소원교회(담임 육민호 목사)에서 열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부흥회로 마련됐다.

▲문의: (312)286-4646



이노비 회원들과 뉴저지 초대교회사역부

### 이노비-뉴저지초대교회, 공동 무료 식사 공연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기관 사역부와 함께 지난 26일 낮, 할렘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 할렘지역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식사 및 음악회를 마련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매년 이곳을 찾아 무료식사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은 초대교회 요청으로 이노비와 함께 방문한 두 번째 행사다.

이번 공연은 한국은 물론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색소포니스트 남유선이 음악감독을 맡고, 재즈싱어 전송이, 베이시스트 이진우, 재즈 피아니스트 심규민이 참여해 무료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도 불렀으며, 감동적인 노래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가슴이 따뜻한 행사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이노비)

# “성경공부는 꼭 담임목사가 하라”

##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산하 이단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주최한 이단대책세미나가 지난 28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소개에 나선 이종명 목사는 “뉴욕의 목회자들이 강사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 한선희 목사(세계 한인이단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회장)는 “이단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웬만큼 대처해서 막기 힘들다(진화하고 있다)”며, “쉽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1대1(2) 외부 성경공부가 있는데, 성경공부는 꼭 담임목사가 직접 가르치라. 이단들에 현혹되는 책임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보급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목회는 숫자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목회의 본질을 알고 절대 경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날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 신사도에 대해 강의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 창시자 교주 이만희가 영향 받은 전도관과 장막성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리적 특성(육체 영생, 성경을 모두 비유로 풀고, 신앙은 이만희 예언서, 종교대통합)과 비판, 신천지 공부단계, 포교방법과 18가지 색출방법,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했다.

구원받은 자 14만4천을 강조하는 신천지는 2015년말 15만명 교인이 있으며, 현재 85세 이만희가 김남희(만민 어머니)라는 40대 여인을 후계자로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상홍증인에서 이름을 하나님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감사예배 및 위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감사예배 및 위축식...6월 24일 카네기홀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사장 한기봉 장모)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뉴욕 카네기홀에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를 연다. 이를 위해 뉴욕에서 감사예배 및 위축식을 가졌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 현영갑 목사, 뉴욕권사선교협장단의 특송, 설교 김재일 목사, 광고 박태규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일 목사는 “크게 외치라”(사 58: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다”며, 이 시대 방송매체의 힘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60년 역사의 극동방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귀와 마음과 영혼까지 사로잡는 세속적 쾌락적 방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카네기홀 공연은 인터넷, SNS 등 수많은 전파 속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극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바꾼 후 백인들이 증가해 현재 20만명으로 장길자 개인 홈페이지는 17개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한 목사는 안상홍의 구원론, 기독교론, 종말론 등에 대해 설명과 반증을 하고 CMR, 옐로원, 새생명복지회, 국제위보유운동본부 등의 연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도(IHOP, 피터 와그너)는 한인 2, 3세대도 많이 연결돼 있다며 △휴거설 △24-7시스템 △초자연적 환상과 계시 △선지자, 선견자, 신사도 △Bi-location △치유수행 라이선스 △진속형 △trance에 설명했다.

질의시간에 한 참석자가 성현경 목사(가스펠웨로십교회, KPCA)에 대한 이단 여부를 묻자, 유상열 목사는 “교협은 연합단체로서 회원 노회에 소속된 목사에 대해 이단여부를 판결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소속노회의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에서 이상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신유를 통해 복음을 말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 강사 이상관 목사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가 10일 뉴욕신광교회에서 시작됐다. 강사 이상관 목사(사랑의빛교회 담임)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주님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사랑)해야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히 “신유”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에 대해 이상관 목사는 “신유를 통해 복음을 말한다”며, “예전에는 복음 없이 신유의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은 치유를 받은 듯 보이나 물이 없어(마귀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목회자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숫자적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뛰어나

고 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것을 전하면서 착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보이며, 마지막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고 “내게서 나가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고전11:3)이라며 “내게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목사는 이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신유) 교재를 중심으로 첫 언약과 둘째 언약(할례 언약, 새 언약), 속사람의 변화, 좁은 문으로 들어감 등에 대해 강의했다.

본 세미나는 4일과 5일, 다음 주인 9일부터 1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다.

(유원정 기자)

동방송을 한국에 세운 미국에 보답하는 감사 잔치”라고 소개했다.

2부 기도 및 위축식은 흥보영상 상영 후 이희선 목사와 전희수 목사가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스카네기홀 공연 어린이합창단과 참석자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방직각 목사가 극동방송을 대신해 자문위원(신현택 목사 외 7명)과 협력위원(김형택 목사 외 3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축사는 안창의 목사와 양승호 목사가 했으며 박태규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던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500명이 출연하며 6월 24일(금) 저녁 7시30분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티토리움에서 개최된다.

티켓은 무료이며 관람은 교회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박태규 목사((718)840-8931, John61511354@yahoo.com)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6회 정기세미나

## 주제: “청교도와 성경교육”

올해는, 400여년전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떠나 삭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케이프 카드(Cape Cad)에 도착하였다가 플리머스 항에 정착한 메이플라워(May Flower) 호(재조선)와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를 비롯한 미 순례자의 조상들(The Pilgrim Fathers)의 정착촌인 플리머스플랜테이션을 탐방, 그들의 장엄한 신앙심의 열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절의 '소명의 결단과 실천'을 지금 나의 것으로 삼아 허리띠를 고쳐 메고자 하는 목회자 및 신학생을 초대합니다.



## 청교도복음연구회

회장 김필식 목사, 총무 이창중 목사

(917)399-6754(이창중 목사), (718) 939-8278(영림교회), (347)901-7472(김경옥 미국), (010)2816-3475(김경옥, 카톡)

- 일 시: 2016년 5월 30일(월, 메모리얼데이)(7:00 AM-8:00 PM)
- 탐방장소: (1) May Flower 호 Water St., Plymouth, MA 02362 (508)746-1622 (2) Plimoth Plantation 정착촌 137 Warren Ave., Plymouth, MA 02360
- 출발장소: 영림교회: 29-05 162 St., Flushing, NY 11358
- 대 상: 목회자 및 전도사, 신학생
- 회 비: \$ 50 (차비, 3식, 교안 포함), 입장료개별부담(인터넷구매 저렴)

현대교회와 청교도교육	김필식 목사 (영림교회, UTS학장)
청교도의 신본주의 교육	이창중 목사 (뉴욕동서교회, UTS 교수)
청교도의 자녀교육1)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김경옥 원장 (청교도가정시역원, 수곡미술선교회장)

\* 올해는 차편상 재확인 선착순 마감 예정이오니 신속한 신청과 착오없이길 바라며, 개별적으로 오실 분도 연락바랍니다.

# 전체 대상 박루비, 합창 1등 생수의강선교회

##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회 학생찬양경연대회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가 주최한 제 3회 학생찬양경연대회가 30일 오후 5시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렸다.

김원재 회장의 개회인사로 시작한 찬양경연대회는 성악부와 피아노부문 그리고 합창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한 경연을 치렀다.

이번 대회 영예의 전체대상은 성악부에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부른 박루비 자매(원서연합교회)

에게 돌아갔으며 합창부문 1등은 생수의강선교회(지휘 랜디킴)이 차지했다. 다음은 제3회 학생찬양경연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전체대상: 박루비 자매(원서연합교회 성악부)

△성악부문(K-3학년) 1등: 황조셉(나성성결교회), 2등: 이지안(남가주사랑의교회), 3등: 박엘비스(LA사랑의교회), 장려상: 이하나(남가주사랑의교회), 이리나 △성악부문(4-6학년) 1등: 배레이첼(주빌리장로교회), 2등: 이경진(베델한인교회), 3등: 이유니스(남가주사랑의교회), 장려상: 김데비(남가주사랑의교회), 우조슈아(남가주든든한교회) △성악부문(7-9학년) 1등: 임에스더(선한목자교회), 2등: 안애슬리(원서연합교회), 3등: 송로렌(지노벨리커뮤니티교회), 장려상: 김미아(가나안교회) △성악부문(10-12학년) 1등: 박루비(원서연합교회), 2등: 박제니(원서연합교회), 3등: 김계일린(원서연합교회), 장려상: 임데비(선한목자교회)

△합창부문 1등: 생수의 강 선교회, 2등 LA사랑의 교회

△피아노부문(K-3학년) 1등: 박엘라(생수의강선교회), 2등: 박엘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회 학생찬양경연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울타리선교회 17주년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감사예배에서 나주목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OC1비전센터 입당감사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승욱 목사가 설교 후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 “자녀에게 갑절로 이어지는 믿음!”

#### OC제일장로교회 비전센터 입당감사집회, 강사 김승욱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는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담임)를 초청,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OC1비전센터 입당 감사집회를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엄영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에서 김승욱 목사가 '순종의 제사'(삼상15:22-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승욱 목사는 "현재 교계가 교인갑소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교회출석률은 저조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OC제일장로교회의 비전센터를 통해 어른세대의 영성이 자녀세대로 갑절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미국이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녀세대의 이만교회는 영적으

로 깨어있어야 한다. 미국의 부흥의 불씨를 이민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중요한 영성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중하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 점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요일 새벽, 저녁, 주일 1부는 '사랑의 제사'(고전13:1-7), 2부는 '삶의 제사'(막6:6-8)라는 제목으로 김승욱 목사가 설교했다.

OC제일장로교회는 지난 1977년 6월 5일 교회설립예배를 드렸으며 지난 1999년 2월 13일 엄영민 목사가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현재까지 사역해오고 있다.

(박준호 기자)

###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감사

#### 울타리선교회 창립17주년 기념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목 목사) 창립 17주년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감사예배가 4월 30일 오전 10시30분 The Well Mission Church에서 열렸다.

나주목 목사는 "17번째 생일을 맞이해 다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 드리는 예배를 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비스(LA사랑의교회), 3등: 최필립(EV free church), 장려상: 이에이든(동부사랑의교회) △피아노부문(4학년) 1등: 김조세핀(남가주사랑의교회), 2등: 김브랜든(선한목자교회), 3등: 아멜리아 가르시아(남가주사랑의교회), 장려상: 이유니스(남가주사랑의교회), 정유나(은혜한인교회) △피아노부문(5-7학년) 1등: 최크리스티나(은혜한인교회), 2등: 임에스더(선한목자교회), 3등: 김데비(남가주사랑의교회), 장려상: 김데비(남가주사랑의교회) △피아노부문(8-9학년) 1등: 없음, 2등: 김이네즈(은혜한인교회), 3등: 홍부영(남가주든든한교회), 이태일러, 장려상: 임데비(나성영락교회)

△합창부문 1등: 생수의 강 선교회, 2등 LA사랑의 교회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제1회 부모/이웃 초청 콘서트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문화사역원 주최 제1회 부모/이웃 초청 콘서트가 14일(토) 오후 5시30분 KDC 히잡극장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300-7131

### 남가주사랑의교회 장학생 선발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장학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 10기 사랑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2016년도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사랑장학회 홈페이지(kdsf.sarang.com)에서 원서접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10일까지. 선발결과는 7월 7일, 장학금 수여는 7월 24일로 예정됐다.

▲문의: (714)397-3334

### 그랜드캐년 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세계장조선교회(대표 박창성 목사)는 2016 그랜드캐년 탐사여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탐사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1차는 오는 7월 5-8일이며 2차는 8월 16-18일.

▲문의: (503)330-2981

### 오이코스대학교 학력인증 TRACS 승인

오이코스대학교(총장 김종인 박사)가 지난 4월 19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TRACS 연례총회에서 학력인증 대학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본교 재학생들은 연방정부에서 정규대학에 부여한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됐다.

오이코스대학교에 개설된 학과 및 학위과정은 신신대학 박사(D.Min.), 석사(M.Div.) 학사

(B.A.B.S.) △음학대학 석사(M.M.), 학사(B.M.) △간호대학 준학사(A.S. in Nursing)이며 경영학 석사(M.B.A.), 간호학과(R.N. to B.S.N.), 영어훈련과정(E.S.L.I)이 오는 9월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오이코스대학교 박사원(원장 김홍기 박사)에서는 목회학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510)639-78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대학진학세미나에서 심영상 집사(아이비 마스터 아카데미 원장)가 대학진학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재능과 관심사 발견... 입시전략 필요

####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학진학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4월 30일 오후3시 본교회는혜제사에서 '대학진학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심영상 집사(아이비 마스터 아카데미 원장)가 강사로 나서 대학진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심영상 집사는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남들이 다 한다는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트루이그등학교 등 사립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기도 하는데 사립 고등학교는 자녀들이 뛰어난 재능이 보이면 그것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립학교는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이 한정돼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전부 들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 집사는 "대학진학 시 중요한 것은 학생개인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과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가기위한 전략이다. 그중 하나는 학교에서 왜 자신을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에세이에

담아내야 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학당국은 최고의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닌 특별한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심 집사는 또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학점이다. 하지만 같은 학점이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학당국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쉬운 과목만 선택해서 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봉사활동 역시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두세 개라도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전공에 맞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학진학 세미나의 두 번째 시간은 5월 7일(토)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 영양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2: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00(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토일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tscsa</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8-2244, Fax: (310)718-2229 15411 N. Figueroa St., Orange, CA 92648 www.dkpc.org</p>	<h4>등문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품어 가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센터),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9 L.A., CA 90033</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찬양):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월-토)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일일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d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dkc.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저녁 7:30 세례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p>	<h4>얼바인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원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www.t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4>중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socalsamungchurh.org Tel: (714)846-9299 Fax: (714)8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stonely.com / e-mail: pastor@conestonely.com Tel: (310)530-401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재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한국교회, 거짓 선동 '신천지' 퇴출 공동대응 교단·기관 '이단 발호' 대응책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2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이날 '개혁신학 이단대책 및 상담세미나'를 갖고 이단·사이비 대책선언문을 공포하는 등 이단들의 발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교연은 '신천지 집단의 일탈행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신천지가 '한기총 해체' 등을 주장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이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세 과시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돌출행동을 하면 할수록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인 일탈집단이던 오명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교연은 회원 교단 및 한국교회 1000만 성도와 함께 강력 대처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도 '신천지는 한국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논평에서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교(邪敎)집단이 단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단 신천지가 공공연히 세력을 과시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묘히 한국교회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신천지의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한기총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

교회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교묘한 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단·사이비 집단의 공격적 포교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노회에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을 확대 조직하고 주요 교단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자들의 세계적 축제인 호주 '다디그라'와 브라질 '파라다게이'는 성기노출 등 선정적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서 "호주에서 ABC 방송사가 퍼레이드를 생중계 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자 지방 의회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교회가 동성애 반대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으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오바

# 교계,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연다 6월 11일 퀴어문화축제 맞서 동성애 축제 실제 알리기로

교계가 종교·시민단체와 연대해 6월 11일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회 주요교단·단체 총무 및 사무총장 20여명은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 동성애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자들의 세계적 축제인 호주 '다디그라'와 브라질 '파라다게이'는 성기노출 등 선정적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서 "호주에서 ABC 방송사가 퍼레이드를 생중계 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자 지방 의회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교회가 동성애 반대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으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오바

마 대통령이 강력한 친 동성애 정책을 펼쳐 사회분위기를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동성애자들도 퀴어문화축제를 대규모 정례행사로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지자체·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성애자들의 부도덕한 행사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동성애 반대라는 시민들의 단호한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 부근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 교단·교회에 부도덕한 동성애 축제의 실체를 알리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가 한국교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사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동성애의 법적·보건적·윤리적 문제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 NCKK, 김조광수씨 초청행사 전면 중단 몰래 진행하다 발각... '안전위해 불가피' 해명에 성도들 강한 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 중인 김조광수씨 초청 행사를 몰래 진행하다가 성도들에게 발각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NCKK는 28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일체 공지를 하지 않은 채 7층 예배실에서 일간신문 기자 3명과 교계신문 기자 3명만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얼마 후 7층에 있던 한 성도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사회관계장관실 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행사장 밖에서 1시간 30분 이상 기다리던 성도들은 2층에서 7층까지 뛰어올라가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김씨 초청 행사는

중단됐다. 2층 행사장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NCKK 관계자에게 행사 진행방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들은 "행사가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NCKK 관계자는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모든 것은 NCKK 인권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2층 행사장에서 성도들과 언쟁을 했던 임보라 서울 성심향린교회 목사는 "7층에서 행사가 열리는지 누가 몰랐다"면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행사를 진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고 반문했다.

# "이단·사이비 집단에 적극 대응하자" 예장합동 이단대책 세미나서 한국교회 결집 강조

"개혁신학 복음과 교리로 근본적인 대치를 한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보호한다."(예장합동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선언문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2일 개최한 '개혁신학 이단대책 및 상담세미나'에서 총회 임원, 전국 노회장, 목회자와 성도 등 참석자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단·사이비 집단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이날 이단·사이비 대책선언문을 공포하고 "법률자문단을 설립해 이단·사이비 집단의 공격적인 포교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노회에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을 확대 조직하고 주요 교단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박호근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신천지의 전면공세를 보며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며 "각 교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단 관련 자

료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는 활동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재 협력중인 8개 교단 이단대책위가 공동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면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이 개인 및 교회, 기독교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박무용 예장합동 총회장은 "신천지가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각 교회 홈페이지에 '기독교방송(CBS) 폐쇄,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에서 나온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이단들이 공격적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팍팍이 있더라도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워야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령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문병호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오늘날 이단·사이비 집단들의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거짓과 미혹, 눈속임이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성경적 진리를 배제한 채 본질을 떠나 현상을 내세우고, 영생의 진리와는 무관한 현세적이고 말초적인 것을 들고 나와 푸닥거리를 하는 무속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이단"이라고 지적했다.

# '신천지 사태' 한국교회 안이한 대응이 자초했다 교계이기주의로 분열된 사이 음지 머물던 신천지 세력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반사회적 단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말씀이 갈급한 일반 교인들의 발길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기성 교회의 헌금이 줄었다고 신천지가 반사회적인가."

사불란하게 붉은색 피켓을 들어올리며 "아멘"을 외쳤다. "신천지 교회는 14만4000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멘!" "신천지 교회는 이만한 총회장을 교주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멘!" "신천지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아멘!"

이날 신천지는 포교 때 써먹는 '모략'(거짓말) 교리대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았다. "종교 탄압, 인권유린, 한기총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일장 연설 후 한기총을 향한 이유가 이어졌다. "한기총 해체!" "와~" 도심 공공장소에서 이들이 벌인 집단행동은 한기총이 아닌 130년 역사의 한국교회를 향한 정면공격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시위 전면에서 나선 사람들 가운데 20·30대 청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기총 해체" 피켓을 든 청년들의 눈빛에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교(邪敎)집단에 불과한 신천지가 대규모 시위를 통해 목회자와 교회를 신랄하게 매도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 교회에 잠입해 몰래 포교활동을

펼치는 신천지 신도들의 얼굴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신천지 소속 홍보 담당자들이었다. 언론 매체 중 신천지의 문 제점을 지적한 곳은 국민일보와 CBS뿐 '천지일보' '브레이크뉴스' 등이 신천지 옹호기사를 쏟아냈다.

이처럼 음지에 머물던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포교회를 비방하고 나섰다. 신천지 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돼 있는 데다 '내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목회자들의 소심한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천지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신천지, 전국 15곳서 대규모 집회 주요교단 이단지정 불만 "한기총 해체" "CBS 폐쇄" 주장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2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 15곳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는 이만희(85) 교주를 영생불사(永生不死)의 신으로 떠받드는 신천지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거리행진까지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대구에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띄워 불시착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단체들은 사교(邪敎) 집단인 신천지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위력을 과시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 등 한국교회가 공동으

로 정부 관계부처에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도 "신천지는 그동안 교계의 분열을 획책하고 '천지일보'와 같은 유사언론을 통해 비방을 일삼았다"면서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을 팔아 종교장사를 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실체를 적극 알리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신천지는 교주 이씨를 신격화하는 사교(邪敎)로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체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남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사회 불안요인을 틈타 사이비 종교가 거리로 나왔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를

방치한다면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갈취하며 거짓말로 포교활동을 펼치는 사이비 종교가 범법행위를 했다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해 교주 이씨를 영원히 죽지 않는 '보혜사' '이긴자' 등으로 떠받들며 '신도 수 14만4000명만 채우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세계를 통치한다'는 교리를 내세운다. 이 때문에 신도들 가운데 학업 포기, 가출, 이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속 신도는 16만명에 달하지만 진실한 14만4000명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13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박용순 목사, 정인찬 목사, 유봉호 목사, 김기택 장로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가 목회자, 교육자, 부흥사, 사회봉사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이사장 안준배 목사,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제 13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박용순 목사(주안중앙교회 당회장), 교육자 부문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부흥사부문 유봉호 목사(교도성복교회 당

회장), 사회봉사부문 김기택 장로(국제사랑재단 상임이사).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되었다.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 발원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하여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5월 26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메달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의회)

# 국내 최대 비즈니스 선교대회 'IBA 서울 콘퍼런스' 내달 6일 개막

국내 최대 비즈니스 선교대회인 '국제비즈니스선교연합(IBA) 서울 콘퍼런스'가 다음 달 6-7일 서울 중구 장충교회에서 열린다. IBA는 교회·선교단체·기업이 연합해 비즈니스 선교(BAM·Business As Mission)운동을 펼치는 단체로 2007년부터 매년 중국 상하이와 서울에서 리더스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IBA 서울 콘퍼런스의 주제는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다. 송동호 IBA 사무총장과 양장식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주제 강의를 하며 이삼롬 르만다 라즈만나 공동창업자, 정재형 드로우 주택협동조합 대표 등이 사례발표자로 나선다.

선박각에는 허형록(팁스) 회장, 임정택(카페 히스빈즈) 박현진(온건축디자인) 대표, 서명국(미국 메릴랜드) 김기석(한동대) 교

수 등이 선교지에서의 창업과 선교사제에 대해 강연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김찬중 ㈜양투카 대표 등 9명의 기업가와 목회자가 운영하며 저녁집회는 엄기영 상하이한인연합교회 목사와 조샘 선교사가 인도한다. IBA는 이틀간 'BAM 엑스포'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비즈니스 선교기업도 소개한다.

IBA 공동대표인 황성주 ㈜리움 회장은 지난 2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젊은이들이 자비량, 특히 비즈니스 선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음세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BA는 BAM 운동 10주년을 맞아 '2016 IBA 리더스포럼'을 다음 달 1~3일 상하이한인연합교회에서 개최기로 했다(iba-all.org).

## '한국 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주일 성수'를 원칙 삼는 크리스천 가정도 일요일에 학원을 보낼까.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 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중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

추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겠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0.6%, 71.2%로 절반을 넘었다.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 운동이 2008년 전국 교회학교 학생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양상이 비슷했다. 응답

자들은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25.4%)를 교회에 못 나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시험 등으로 인해'(11.4%)나 '학원에 가지 않자면 공부를 위해'(7.8%)라는 답변까지 합치면 학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학생은 44.6%에 달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장신대) 교수는 "신앙보다 시험점수, 명문대 입학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 학부모의 왜곡된 신앙관이 자녀를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라며

대상	그렇다 (매우+약간)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종직자	57.4	42.6
서리집사	34.2	65.8
일반성도	53.5	46.5

(자료: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한국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크리스천 학부모가 건강할 자녀 교육의 주체로 변화도록 한국교회 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입시를 향한 맹목적 질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녀들이 힘을 통해 건강과 대인관계,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 학부모부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학부모가 건강할 자녀 교육의 주체로 변화도록 한국교회 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입시를 향한 맹목적 질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녀들이 힘을 통해 건강과 대인관계,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 학부모부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화 사회 따른 교회 대처 방안 (1)



시니어즈블레싱라이프 원장 김병호 목사

### 새로운 삶의 출발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인생은 60세부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 "인생은 100세부터다"라고 말이다. 요즘 건강 100세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보통 10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은퇴 후에 오랫동안 노년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수

노인들에게 의미 있고 귀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다.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기타 종교 시설의 교육기관 등에서 학습의 형태로 존재하게 해서 과학의 발달로 사회와 세대 간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인의 상실감 극복 차원에서 필요하다. 인생주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 번의 정서적 위기는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에 나타난다. 그런데 청년기의

인 사목, 또는 노인 목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 미국 교회나 한인 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개신교의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나,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될수록 노인 신자들이 많고, 10년 전만 해도 농어촌 교회는 젊은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데, 지금은 대도시도 교육부서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 평생교육 통해 노년생활에 활력 얻고 변화 사회에 대처 늘어나는 노인 신자위한 부서 마련이나 교회 설립 고려

단으로서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의 노인 교육은 여행, 골프, 바둑, 낚시 등을 즐기거나 집에서 TV를 보면서 여가를 보낸다. 즉 교육이 하나의 무료한 삶을 중전시켜주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LA 코리아타운(Korean-town)에서 웨스턴과 7가(Western Ave-7th St) 사이에 있는 맥도널드(McDonald)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음료수 박스를 홀로 집어넣고 바깥에 있는 의자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유는 미국에 35년 전에 왔던 교인이 필자에게 말해주었다. 한국 노인들이 아침 일찍 마실 가두이 맥도널드에 오셔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고 하루 종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휴지와 크림, 설탕 등을 내 것인 양 챙겨 가지고, 테라스 의자에서는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담배와 오물들을 버리고 때로는 고성방가로 인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맥도널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필자가 처음 미국에 왔을 당시에만 해도 맥도널드나 다른 푸드 체인점에서는 음료수나 설탕과 크림 등 다 카운터 바깥에 있었다. 그런데 유독 웨스턴과 7가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너무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필자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속상했다. 그것은 이렇게 노인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사이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이 분들을 위한 재교육과 훈련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월을 날아가는 화살같이 여긴

위기는 소망에 대한 좌절과 관련되지만, 노년기의 위기는 신체적 상실, 배우자 상실, 직업의 상실 등에서 오는 절망감이다. 즉 노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실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과 장래에 대한 허무감으로 인해 절망상태에 들어가기 쉽다(양선화 2007:17). 목회를 하면서 많은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감 중에 가장 큰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었다. 그 상실감은 곧 바로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능력을 재평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면, 다양하게 찾아온 상실감과 무료한 시간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 평생 교육의 의미라 하겠다.

### 고령화 시대의 목회적 대안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 교회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개톨릭 주교회의가 발표한 '2011년도 한국천주교회 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신자가 모두 75만 명으로 전 신자의 14.6%에 해당한다. 이는 2012년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1.8%보다 훨씬 높다는 말이다.

2015년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PPIC)가 최근 발표한 '캘리포니아 시니어 인구성장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480만 명으로 12%를 차지한다고 했으나 교회 노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도 가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사회 보다 훨씬 빨리 늙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 신자들을 위한 노

필자가 섬겼던 이민교회도 교인 150명 교회인데 아동부, 학생회가 없어지고 청년 몇 명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만 그렇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 중 상당수가 필자가 섬겼던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고령화에 의한 노인 성도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례로 남가주에 있는 ANC은누리교회는 출석인원 3500명 중에 7-800명이 시니어라고 한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출석인원 1250명 중에 시니어들이 250명이라고 한다. 별말한 인교회는 30%가 시니어들이라고 한다. 영락교회, 예브리데이교회, 은혜한인교회 등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시니어들로 점점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80%가 시니어들이다.

그동안 교회들은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제자훈련이다, 성경공부다, 아낌없이 재정이나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에 반해 시니어들에게는 효도관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했었다.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똑 같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고령화 시대에 맞게 예매나, 교회조직을 갱신하는 데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노인 목회를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소개할까 한다. 여기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다.

bhkim0691@gmail.com

## 선교 펴기

### 스와질랜드

우아프로젝트 2016년 4월 소식을 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1:4).

스와지는 여름에서 가을로, 한국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이라 두 곳의 날씨가 거의 비슷하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기에 더욱 감기에 주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계절인 4월이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잔인한 4월로 다가와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인내를 이루려고 무던히도 애쓴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란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더 온전히 인내를 이루려 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송영동 과장님이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방문을 해서 4사람의 환자들에게 무릎치환수술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반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송 과장님이 여러모로 노력해서 짧은 기간에 인공관절도 기증받고 기구들도 준비하여 팀을 구성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Smith & Nephew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이곳 스와지에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이 분야가 스와지정부중양병원 정형외과과 송과장 팀과의 계속적인 협력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동 과장은 10년 전 의대생 시절에 우간다 진료캠프에 참석했는데 그 때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이제는 어엿한 전문의가 되어서 학생 때 가졌던 꿈을 직접 실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4월 중순에는 대전의 천성교회 조성근 목사님께서 스와지랜드 사역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필요를 아셨으므로 지금까지도 힘써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해주시리라 믿으며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진행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몇 군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되기를 기다렸는데 저희들의 준비가 부족한 때문인지 아쉽게도 금년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하기에 이곳에서 암 사망원인 1위인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사업은 남상윤 교수님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 결과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은 스와지 정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우선적으로 건축에 대한 10억과 기자재 등에 대한 5억)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시간표로는 5, 6월에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의 단기 방문이 필요한 데 6월 중순에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오시기로 하였기에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이시기에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5월 중 예라도 오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금년 초부터 준비하며 진행했던 파랄라제단과의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무적 절차는 다 끝났고 책임자의 서명만 남은 상태이기에 이번 주에는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위의 두 분야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10월에 방문하실 수술 팀들(안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환관외과, 이식외과 등)을 위한 준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로 한 선생님들도 잘 준비하시고 이곳에서의 환자들도 잘 준비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설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김선영 교수(sykim@cnu.ac.kr, 010-4408-7154, 070-7574-1652 스와지사용)나 김경진 부장(010-2743-8430)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는 6분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평강으로 충만한 날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아프로젝트 드림

###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2. 단기사역자(2-4주)들을 보내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4.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sykim@cnu.ac.kr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선교 편지

필리핀

'마스바페 섬' 지교회 순회 사역 (2016년 1월 18일-1월 22일)

2014년 1차 이후로, 2차 (마스바페 섬-티카오 섬) 투어를 했습니다. '마스바페 섬'은 중부 섬 중에서도, 첫 지교회가 생긴 섬이며, 총 53개의 지교회 수가 가장 많은 섬입니다.

한국에서 귀한 개척(?) 교회가 와서, 연합 투어를 했습니다. 주일 밤에 도착한 한국 교회는 우리 본 교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총 25명(필리핀 9명, 한국인 16명)이 차량 3대(제 봉고차, 장로님 봉고, 렌트차)에 올라타 새벽 3시에 마닐라를 떠나 14시간 운전 끝에, 오후 5시 피오두란 항구(루손 섬 끝자락의 항구)에 도착하여 짧은 쉼 같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 1시에 차량 3대를 배에 싣고 항구를 떠나, 새벽 6시에 마스바페 섬 도착, 마스바페 항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오전 9시에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마스바페 항구를 떠나, 오후 1시에 티카오 섬에 도착했습니다(마스바페 섬과 달리, 티카오 섬은 큰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 편의점, 은행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섬입니다).

오후 3시에 티카오 지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이 사역, 배식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인도하시는 감격의 집회를 했습니다.

티카오 청년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갈급한 영혼에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니, 교회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나 청년들이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울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던지, 도저히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티카오 섬 사역 이후 마스바페

섬으로 건너가서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그 도시에서 가장 모이기 좋은 지교회를 골라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2. '바따안 지역' 지교회 사역 (2016년 1월 25일-1월 26일)

1주간의 (마스바페 섬-티카오 섬) 사역을 끝내고, 우리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바따안 지역'(마닐라 북쪽 5시간 거리)으로 이동, '렉슨 전도사'의 바따안(1)교회, '바울 전도사'의 바따안(2)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전도 집회를 열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3. 무료 미용 봉사(2016년 1월 23일)

'브라이언 형제' - 빈민가 아이들에게 무료 미용 봉사하는 것을 즐겨하는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때 심한 방황을 했지만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지교회들을 돌며 미용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좌-우)

빈민가의 어느 성도 집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봉사를 하다가 어두워져서 길거리로 나와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감격의 고백을 하는 청년입니다.

긴급 기도 요청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대신



(티카오 섬)  
상- 지교회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 기도  
중- 통성 기도(좌), 단체 사진(우)  
하-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울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5월 9일(월)입니다.

1위: 두테르테(Duterte, 71세)-34% 지지율(전 다바오 시장)

2위: 그레이스 포(Grace Poe, 49세)-23% 지지율(전 상원 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1위 후보'의 성품 때문입니다.

1. 죄수 1,700명을 정식 법적 절차 없이 죽였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시'의 '시장'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범죄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죽였기 때문에, 다바오 시의 범죄율은 전국 최하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범죄와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여,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넘치는 시체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인들에게 '장례식 사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2. "대통령이 되면, 죄수 10만 명을 마닐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

3. 수감 중이던, '호주 여성 선교사'가 교도소에서 집단 강간을 당한 후,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다! 아쉽다!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라고 발언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시'의 시장으로 있었던 당시의 일입니다. 인구 30%가 무슬림인 '민다나오 섬'은 전도가 가장 어렵고, 반정부 단체의 테러도 많은 곳입니다. 아마도, 호주 선교사의 교도소 행은 그런 배경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 3번 사건 후, 호주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두테르테 시장을 비난하자, "입 닥쳐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호주와 미국과 외교 단절을 하겠다!" 두테르테의 당선이 유력하여, 해외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 -> 패소 환율이 사상 최대로 폭락 중입니다.

5. 여성 인권에서, 두테르테를 고발하니, "지옥에나 가라!"라고 발언

6. 유세장에서, 여성 시민에게 강제 키스, 저항하는 여성, 강제 키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교황 방문으로, 교통이 통제되니, "매춘부의 자식!"이라고 발언.

트' 등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신생아 때, 어느 성당 앞에 버려진 '그레이스 포'(현재 2위)를 어느 유명 배우가 입양하여 키웠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레이스(Grace)인 듯 합니다. 항상 '흰 옷'(흰 화이트츠, 흰 반팔)을 입고 다니는 그녀의 깨끗하여, 정직한 성품 때문에, 상원 위원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



상-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는 바따안(2) 교회 - 유치원생들의 특송(좌), 풍선 왕관(중), 페이스 페인팅(우)  
중- 복음으로 뜨거운 밤  
하- 풍선에 신난 아이들(좌), 페이스 페인팅(중), 배식 사역(우)

8. 마닐라 교통 해결 방안 질문에, "마닐라 차량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라고 발언.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은 무슬림 지역의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에, 시장이 될 수 있었고, 현재, '민다나오 섬'에서의 그의 지지도는 60%를 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슬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민다나오 섬'은 '무슬림 피난민', '무슬림 테러리스트' 등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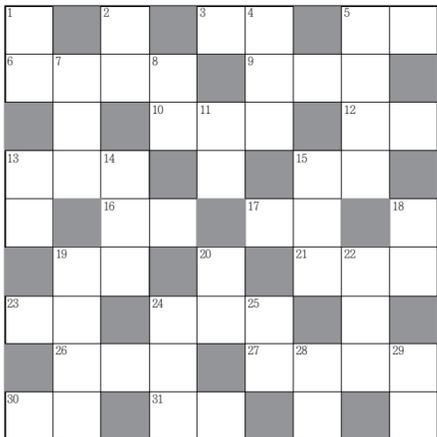
고, 현재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세장에서 연설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군인들이 피 흘렸던 형제 나라,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산 윤 선교사 드림  
holygreatmount@daum.net

십자말 • Cross Word (123)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 노래의 내용이 되는 글(대하35:25).
- 길흉을 점치고 굿하는 여자(사57:3).
-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시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행13:4).
- 비스듬히 기울어진 땅(수10:40).
- 교회마다(행14:23).
- 시체를 묻어 두는 곳(민19:16).
- 에브라임 산맥 중의 한 산. 여호수아의 분묘가 있다(수24:30).
- 사고(思考), 사상(想6:5).
- 에노스의 아들이요 마할랄의 부친(창5:9).
- 매거서 부담시키는 일(왕하3:35).
- 흙, 시멘트 파우더 구워 만든 지붕을 이는 물건(욥2:8).
- 전체 가운데의 한 부분의 것(고전13:9).
-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균용도로 가까이 있는 곳. 유명한 캄비학교가 있었다(스2:33).
- 스리아의 할아버지며 네리아의 아버지(렘32:12).
- 오직 한 곳으로, 전혀(대하19:3).
-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순국하기 전 읊은 시의 유명한 한 구절(국사).
-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복, 율법책을 낭독할 때 여호와께 경배하며 부르짖은 자(민26:23).
- 더할 나위 없이 몹시(시119:107).

<세로 푸는 열쇠>

- 열매를 맺음(산29:23).
- 사자나 말 따위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욥39:19).
- 요즘 말로 하자면 부흥회,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교회).
- 아는 것도, 깨달음도 없음(시82:5).
- 바울이 로마총독 벨릭스 앞에서 심문 받을 때 관여한 천부장(행24:22).
- 하만의 출신지(에3:1).
- 가르쳐 지능을 가지게 하는 일(왕하10:1).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행15:22).
-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며 증경 제사장으로서 정권도 잡았다(행19:14).
- 남편과 생이별한 여자(삼하20:3).
- 외롭고 쓸쓸함(애1:13).
- 베냐민의 자손, 아비단의 부친(민1:11).
- 위엄이 있는 기세(사66:15).
- 향을 피우는 제단(출30:27).
- 최후(삼하23:1).
- 므낫세의 아들인데 압복강 이북 아물인의 영토를 정복하고 하봇아일이라 했다(민32:41).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견해(딤후5:21).
-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람(몬1:12).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본지는 목회자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모의 길 안내를 위해 이회속 사모가 펴낸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를 필자의 동의를 받고 연재한다. "목사 때려치세요!"라고 하던 이회속 사모가 최고의 에제르가 되기까지의 사연들을 숨김없이 고백한 이 책을 통해 바른 사모가 되는 지표와 힘이 되는 한편 독자들

에게는 사모들의 마음 한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참고로, '에제르'란 창세기 2장 18절 중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이며 '돕는 자, 응원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



이희숙 사모

## 제 1장 당신과 결혼한 사람

사모는 자기와 결혼한 남편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언제 될 때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 할 수 있다.

### 인간 남편에 대한 이해

그도 한 남자이다. 사모는 자신과 결혼한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 혹은 날개가 없는 천사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 필자는 의명의 사모들로부터 전화 상담을 자주 받는다. 그들은 하나같은 질량적인 탄식과 절규는 "사모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 저의 남편이 목사만 아니라도 제가 이해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겠는데... 저는 정말

도 없었 것이다. 사실 남편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모의 실망도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모는 남편을 거룩하게 성별된 목사로 바라보기 전에 목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특별히 목사로 택하여 부르시고 기쁨 부어 써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 목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도록 아내인 사모를 돕는 배필인 에제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 2장 사모의 정체성과 기본자세 및 사명과 본분

### 남편의 사역에 대한 이해

사모는 자기와 결혼한 남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사모로서의 내조를 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 2장 사모의 정체성과 기본자세 및 사명과 본분

### 사모의 정체성

한국에서 '사모'라는 칭호는 직장 상사의 부인이나 존경하는 스승의 부인을 부르는 칭호로 통용된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부인, 그리고 전도사나 감도사 부인 등 목회자 부인을 일컫는 칭호이다. 이는 최대의 존칭어인 여성으로서 받는 최고의 명예로운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냥 'Mrs.'라고 부른다.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자신이 나아가 많이 든 기분이라고 그냥 '미세스, 아무게'라고 부르기만을 원하는 젊은 사모도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사장 부인이나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은 무조건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오래 전에 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딸 윤진아와 함께 백화점점에 쇼핑을 갔다. 그 때에 한 점원이 필자를 보고 "사모님, 무엇을 찾으시지요?"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딸 윤진아가 "Mom, How does she know

그도 한 남자다...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 혹은 날개가 없는 천사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사모님께 전화 걸었어요" 라는 것이다. 상처를 받아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도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다. 필자는 그럴 때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하며 그 사모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사모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준다. 또 "사모님, 저의 남편은 위선자입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는 멋지게 해도 집에서는 자기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매일 '당신이 설교한 것을 삶에 실천하세요' 하며 싸웁니다" 하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만일 강단에서 자신이 설교할 대로 살 수 있는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한 사람

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를 택하여 기쁨을 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었다. 이 사명은 세상의 어떤 직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철두철미한 신적 조명에 의한 성직이다. 그러므로 보수나 대우를 초월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보살피며 하마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고 고백한 사도바울과 같이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목사의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목사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이다(말 2:7).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고전4:10).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고후5:20). 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마4:19).

that you are Samonim?"라고 깜작 놀라 질문한 적이 있었다.

목사 사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며 한 인간이다. 한 남편의 아내이고 자녀들의 어머니다. 목회자 남편을 돕는 배필 '에제르'이다. 교회의 사모이다.

이 세상에 다른 여자들은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사모는 그것에다가 또 다른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소명을 받은 목회자 남편의 사역을 도와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모의 일이 힘든 것이다. 교회에서 다른 사모의 일들은 사모가 아닌 다른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그 어떤 다른 성도들로도 대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 월 구할 때 일어나는 사건(마9:18-26)찬214장

본문에 나온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을 통해 배우는 진리는? 첫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사실입니다(19-25).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나라의 왕은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대로 무슨 일을 언제나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례집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둘째, 한 사람의 믿음의 요청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18). 작은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왕이십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셋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26). 복음은 놀라운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청이 주님의 역사를 가져왔고 그 응답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 그 나라의 왕, 그리스도에게 쫓아도 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 주께 구하십시오.

## 화 열심 있는 믿음(마9:20-22)찬97장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첫째, 그녀는 소문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은 믿음의 역사 곧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으로 믿게 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간 것

을 보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둘째, 여인의 믿음 있는 행동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인간 노력 자체는 무용하나 주님이 그 수고를 사용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믿음은 때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일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 수 두 소경의 믿음(마9:27-31)찬 96장

두 소경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 성격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그가 구약의 언약을 믿은 자란 증거입니다. 그의 공황이 자기를 고치는 유일한 근거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둘째, 그 믿음은 행동하

였습니다.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히 할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때로 되었습니까. 믿음을 화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 목 병어리를 고치신 주님(마9:32-34)찬271장

주님의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예수께 데려 왔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도 있으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복이고 그 자체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각 치유되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면 사라지듯이 어떤 문제라도 예

수님에게 가져오면 즉각 치료된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치유는 어두움에 있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흑자는 기이한 일로 기뻐하나, 다른 사람은 귀신의 왕을 통해 고친다고 조롱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치료의 광선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 금 주님이 보신 세상(마9:35-38)찬253장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주님의 관점을 가집니다. 본문은 무엇을 보입니까? 첫째,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로 보셨습니다(36). 고생과 유리함이 특징입니다.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정복한 자의 안목을 가집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주님을 자기 목자로 알았기에 좁은 길에서라도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많은 추수감을 보셨습니다(37).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를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고시고 한사람 한사람을 다루십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헛된 삶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추수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 추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35,38).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저절로 되거나 나뉘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일꾼을 통해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끝난 무리인 교회는 이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 토 제자의 전도(마10:1-6)찬257장

주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하신 목적은 전도하게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 주의 명령 따라 가야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겸손한 순종 위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5-6절에 가야 할 대상을 이방인과 사마리아의 고을을 제쳐 놓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로 지목하심은 현실에 충성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가서 할 일

은 천국 복음을 접하여 믿게 하고 교회로 모아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은 12 사도를 부르시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이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말보다 전도의 미려한 방법으로 그이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전도에 둡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철야를 위한 헌신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수요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1(404-270)	<b>승송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강서구 신성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곡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구 대방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아카데미: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63-3 (140-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전 교인이 볼런티어로 사역하는 교회를 꿈꾼다!

## 리더십저널, 볼런티어 사역전문가 말린 윌슨의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 소개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교회라는 온몸 구석구석 모든 지체가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

모든 교인이 각자 적합한 볼런티어의 역할을 할 경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될까?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일한다는 평판을 듣는 교회는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할까? 교인들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소그룹 모임을 계속 만들어 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볼런티어 단체와 교회에서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를 활용해 왔다. 이것은 조직 안에 '심장 이식'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 안에 일단 이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그 조직은 볼런티어들에게 개방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뿐 아니라, 볼런티어들 역시 섬기는 일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볼런티어 리더십을 가진 단체와 교회는 어떠한 체계를 조직에 심었는지 기초인 4단계를 먼저 살펴본다.



1단계: 비전을 세우라

### 통합적 비전에 초점...그에 따른 사명과 목적, 목표 세워야 구체적 실천계획 세우기는 리더십 체계에 가장 핵심적 부분

비전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비전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결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뒤를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한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로는 결코 볼런티어들을 모집할 수 없기에 반드시 비전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볼런티어 리더십은 보다 크고 통합적인 비전을 후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단계: 사명과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라

사명과 목적 선언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사명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런 사명은 당신의 몇 가지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과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작이다. 만약 교회 안에 통합적인 사명과 목적

선언문이 없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만들도록 권의할 것을 요청한다.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려면 선언문 작성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고,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또한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어디에서 수행할지를 개괄해야 하며, 작성된 사명선언문을 통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단계: 목적과 목표를 세우라

볼런티어 리더십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가 간략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언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달력에 분명하게 기입하고,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수치화 하는 것도 좋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내용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려면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거나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에는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볼런티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목회 현장에서 제기돼온 문제이다.

콜로라도 주 보울디에 있는 볼런티어사역 전문단체 (Volunteer Management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말린 윌슨(Marlene Wilso)은 지난 35년 동안 교회 볼런티어에 관한 저술과 훈련 사역을 해왔다. 그녀는 볼런티어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시스템 즉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어질 것이다.

4단계: 실행계획을 짜라

실행 계획은 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한 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 목표 밑에 바퀴를 다는 것이다. 목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목표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그런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판단하는 법과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볼런티어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비전과 그에 따른 사명과 목적 선언문,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은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세워진 후 세부계획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리더십 체계를 세워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예수 본 받는 목회자 양성이 목표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원은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설립한 6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이며, 규모로는 미국 내 10대 신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미국 NCA(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의 HLC(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 및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등 최고기관의 최고인가를 보유한 최우수 학교입니다. 현재 한국인 재학생이 300명에 이르고 있고요."

2년 전 한국어부 학장으로 사역하다 작년부턴 아시아부 학장으로 승진 사역하고 있는 박성진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아시아부에는 한국어부와 중국어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 학교 한국어부는 한국어로 진행, 최저의 등록금, 최고의 강사진, 미국 인증기관 최상위 평가, 그리고 M.Div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전 세계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석사과정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청강형식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고요."

박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한국어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교육목회학박사(D.Ed.Min), 목회학박사(D.Min), 그리고 온라인 목회학석사과정(M.Div Online)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Ph.D)은 미국내 주류신



적 모델연구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박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수업은 매우 타이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사역자들이다

보니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퍼 작성 때도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도록 초점을 맞춰가다보니 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클래스를 완전히 마칠 때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으로 수업만 쪽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남침례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서의 실제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 NCA, ATS 인가, M.Div 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한인 300명 성경사역학Ph.D, 미 주류신학교 중 첫 한국어프로그램 마련

학교 중에는 최초로 한국어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Ph.D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이며 세미나는 인텐시브로 운영된다.

"Ph.D과정을 개설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Ph.D지 결국에는 업그레이드된 목회학박사과정(D.Min)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신경을 썼습니다."

박 박사는 "Ph.D과정은 성경적 교회론, 교회와 교회모델, 그리고 교회와 현대문화와의 대화 등 세 가지 전공필수과목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안목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토대가 교회성장학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평가해볼 수 있는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각자가 사역하는 교회들을 바탕으로 사역환경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살펴볼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독특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역자들을 초빙해 그들의 사역철학을 나누며 어떤 모델로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 박사는 "교육목회학박사과정은 일반 교육학박사(Ed.D)와 동등 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 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목회학박사과정은 성경

그것이 신학적이고 실제적이라는데 감정을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교에서 강의하는 강사진 중에는 목회변증학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교), 목회교육학은 파이디온선교회와 함께하며, 양승헌 교수가 목회교육학 박사과정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박성진 박사는 본교재학생들에 대한 바람으로는 "무엇보다 저희학교의 각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충성되고 삶 가운데 예수님 본받는 목회자가 됐으면 합니다"고 언급하며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인성을 가지고 목회하는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목회가운데 일어나야 하니까요. 학생들이 그 부분을 잘 배우고 각 과정 속에서 기술이나 스킬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간절함을 가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진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재료공학과를 졸업(B.S.)하고 포항공대에서 재료공학석사(M.S.)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6년간 근무하고 1999년 도미,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하고 신시네티에 위치한 히브리 유니온대학교에서 철학석사(M.Phil)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박준호 기자)

###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문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전병길 목사 (강남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관교회)

추천!!!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귀족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다성교 목회자 김진홍 지음

삼대지 설교뿐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관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

### 아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산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 권)